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6 No. 1

라틴아메리카연구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23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Editor

Soon-Joo Lee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University of Ulsan)

Managing Editor

Bradley Tatar (Division of General Studies,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young-Mo Gu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e-Soon Kim (Institute of Hispanic Studies, Korea University)

Editorial Board

Gian Luca Gardini (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 (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 (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Hae-Sung Choe (Institute of Hispanic Studies, Korea University)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Koo-Byoung Park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Kyung-Hee Ka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Jeju National University)

Mi-Jung Le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am-Gyo Oh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iduk University)

Sang-Sub H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u-Jin Lim (Facult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Colima)

Suk-Kyun Woo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ae-Kyoon Lim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Yong-Seok Noh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Young-Seok Kim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 라틴아메리카연구 -

Vol. 36 No. 1

2023

Contents

일반논문

- 001 중국은 중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고 있는가?
김기현
- 035 Can the Law Pull the Custom?
-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박효진 / 김종섭
- 053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본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의 『깊은 강들』
우석균

Articles

중국은 중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고 있는가?*

김기현**
단독/선문대학교

ABSTRACT

Is China threatening US hegemony in Latin America?: In the 2000s, China's presence in Latin America expanded significantly. The United States, which has hegemony in the region, initially did not attach much importance to China's move, but began to regard it as a threat to hegemony in the mid-2010s. Nevertheless,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 is not yet at the level of threatening US's hegemony in Latin America in terms of either hard or soft power. To show that, this article compared and evaluated, as far as possible, quantitatively the soft and hard p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Latin America. In order to analyze hard power,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loans, and aid were examined in terms of economic power, and military bases or related facilities and current status of military presence were surveyed in terms of military power. In terms of soft power, this paper focused on national reliability and attractiveness.

Key words: Latin America, United States, China, Competition for hegemony, Hard and soft power/ 라틴아메리카, 미국, 중국, 헤게모니 경쟁,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3864)

** Ki Hyun Kim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panish, Latin American Studies at Sun Moon University, Korea (drkhkim@sunmoon.ac.kr).

서론

중남미는 전통적으로 미국이 헤게모니를 장악해 온 지역이다. 19세기 초 중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자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선언함으로써 막 독립한 미주대륙 국가들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장이 되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20세기 초 영국이 1차 세계대전으로 힘이 약화되는 동안 미국은 중남미에서 실질적 패권을 장악했다. 중남미에서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주기구(OAS)를 수립하면서 중남미를 미국의 배타적 세력권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함에 따라 미국은 중남미에서 경쟁자 없는 절대적 패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감소했다. 이데올로기적 경쟁자의 위협이 사라진 중남미에서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했으며, 그들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오로지 마약, 이민 등 국내 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제한되었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무역, 직접투자, 대출, 원조 등 경제 분야에서 꾸준히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처음에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원자재 확보와 중국 제품의 수출 시장 확대라는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 세계경제를 이끌면서 중남미와 중국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진전했다.

중국은 중남미에서 경제적 관계의 심화를 기반으로 정치, 문화, 안보의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시진핑이 중국-CELAC 협의체 제 2차 회의에서 중남미도 ‘BRI’(Belt and Road Initiative: ‘One Belt One Road’, 즉 일대일로에서 최근 이름 변경)에 포함시킬 것을 선언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남미에서 에너지와 광물 자원 투자를 넘어 인프라, 물류, 정보기술, 첨단산업, 5G 통신망으로까지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지배로부터 주권을 강화하고 서구 지배 국제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당수의 중남미 정부들이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견제도로 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중남미에서 중국의 부상이 이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나아가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Hsiang(2016, 63)은 이런 상황을 두고 중남미가 ‘탈 미국화’함으로써 먼로주의가 종식되었으며, 나아가 중남미에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력전이’¹가 태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패권을 추구하는 싱크탱크에 소속된 학자들도 중국이 글로벌 수준은 물론 중남미에서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문제를 여전히 간과하면서 중남미에 대한 무관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중국이 중남미에서 단지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지정학적 관계 확대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대해 전략을 다시 세우고 중국의 경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allagher 2016; Piccone 2016; Ellis 2018; Fonés and Mendez 2018).

언론에서도 이러한 경고는 반복된다. *The Economist*(2018)는 2018년 기사에서 중국이 중남미에서 미국의 무관심의 틈을 타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2019년에 *The National Interest*(2019)의 “미국이 중국에게 라틴아메리카를 빼앗기고 있다”는 제목의 한 기사는 그 제목 자체만으로도 자극적이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경고는 계속된다. 2021년 *Time*(2021)의 한 기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의 중남미 지원으로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보다 더 커졌으며 따라서 중남미에서 중국의 위험도 그만큼 더 증대했다고 경고한다. 최근에는 *Bloomberg*(2022)도 이러한 경고에 가담했다. “중국은 어떻게 미국을 제치고 남미를 지배하게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블룸버그는 특히 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 진출이 미국을 넘어 지배적 위치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은 대부분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의 영향력과 동시에 비교하면서 각각이 가진 힘의 실질적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기보다 중남미에서 중국의 부상만을 강조하면서 그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실제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구체적 수치들을 통해 중남미에서 중국

1 ‘세력 전이’는 Organski(1958)가 제시한 이론이다. 기존의 ‘세력균형이론’이 힘이 유사한 두 강대국의 존재가 힘의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질서를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세력전이’ 이론은 잠재적 도전국이 패권국의 국력(주로 경제력)을 따라 잡아 힘이 비슷해지면 패권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의 실질적 영향력을 미국의 영향력과 함께 비교 측정해 보고, 그를 통해 중국의 부상이 실제 중남미에서 미국의 패권을 어느 정도 위협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로 중남미 국가들도 불가피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중남미가 어떤 외교 전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한 나라의 영향력은 크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제할 수 있는 지배력으로서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도 원하도록 하는 흡수력으로서 문화적 힘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나뉜다. 물론 이 둘을 적절히 구사하는 상황지능으로서 스마트 파워도 중요하다. 최근에는 정보전이나 정치적 후원금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샤프 파워도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샤프 파워는 중국의 은밀한 영향력 행사를 비판하기 위해 서구 언론이나 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도 객관적 평가도 쉽지 않다. 스마트 파워 또한 상황적 변수에 따라 작용되는 것임으로 수치로 비교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드 파워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적 영향력을 그리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미중의 문화적 영향력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관련 선행 연구

중남미 패권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 연구로는 Smith(2012)의 *Talons of the Eagle: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한글 번역판 제목: 『라틴아메리카, 미국, 세계』)가 있다. 여기서 저자는 라틴아메리카가 여전히 미국의 뒤통이라는 전통적 미국 헤게모니 지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Prashad(2007)과 Funk(2013)는 기본적으로 중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중남미와 제 3세계 국가들 간에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관계가 존재했음에 주목한다.

중국과 중남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200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Roett and Paz(2008), Ellis(2009), Hearn and

León-Manríquez(2011), Fornés and Butt(2012)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 진출 확대와 미국의 헤게모니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중남미가 여전히 미국의 뒤뜰이라는 Smith(2012)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비교 분석 없이 단지 중국의 부상만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Gallagher(2016), Piccone(2016), Ellis(2018), Grabendorff(2018)가 있다. 이들의 연구와 앞선 연구들의 차이점은 원자재 붐 붕괴 이후 중국과 중남미 관계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2014년 이후 중국 경제의 침체와 중남미 원자재에 대한 수요 감소, 그리고 중남미에서 좌파 정부의 쇠퇴와 우파 정부의 등장 등으로 인해 중국과 중남미의 관계는 최근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Gallagher(2016)는 그것이 양자 간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중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 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중국, 중남미가 모두 공영하는 삼각관계의 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루킹스 연구소 소속의 Piccone(2016)는 여전히 중남미와 중국의 관계 심화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전략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통합한 스마트 파워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CSIS의 Ellis(2018)는 중국의 이러한 대 중남미 영향력 확대에 의해 전통적 헤게모니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Grabendorff(2018)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단지 방어적 전략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남미에서 미중경쟁에 대한 이러한 탁월한 연구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이들이 중남미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양적 비교를 통해 중국이 가진 영향력의 실질적 크기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중국의 영향력 증대만을 강조하면서 그를 경고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최근의 중국과 중남미 관계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지 않다.

경제력 측면에서 미중의 영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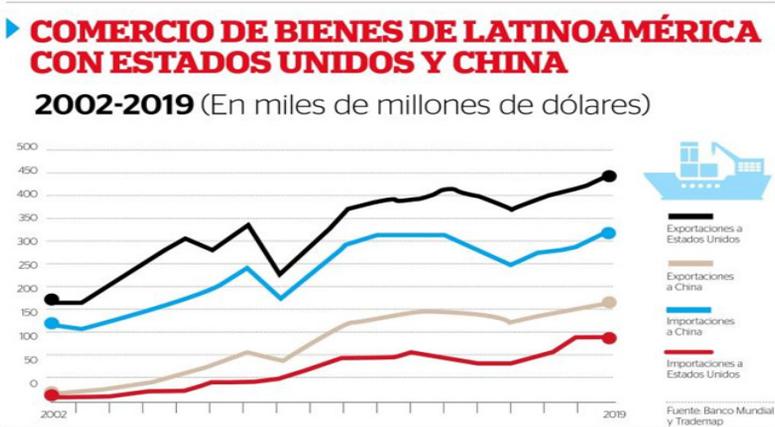
교역

경제적 영향력은 크게 교역, 투자, 대출, 원조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교역 부문을 보면 2019년 기준 중남미의 미중과의 총교역량은 미국이 5290억 달러(그림 1.에서 제일 윗줄과 제일 아랫줄의 합계)이고 중국이 4680억 달러(위에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합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² 중국과의 교역량은 홍콩을 포함한 것으로 홍콩을 제외하고 중국 대륙과의 교역량만 계산한다면 이 수치는 조금 더 줄어든다. 수출만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그림 1. 제일 윗줄)이 4550억 달러(43%), 중국으로의 수출(위에서 셋째 줄)이 1580억 달러(12%)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중남미 대미 수출의 대부분을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제외하면 중남미의 대중 수출액 1210억 달러는 대미 수출액 960억 달러 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수입액은 중국에서의 수입이 3100억 달러(위에서 두 번째 줄)로 미국에서의 수입(제일 아래 줄) 1370억 달러로 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다(El Peruano 2020.11.8).

이러한 수치를 살펴보면 교역 측면에서 중남미에서 중국의 부상은 확실해 보인다. 수입에서 중국의 우세는 월등하고, 전체 교역량은 비슷한 수준이며, 수출 또한 멕시코를 제외한 남미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더 높다.

물론 경제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입보다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수출을 지역별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미의 경우는 2018년 기준 각각 대중 수출 비중이 20%로 대미 수출 비중 16%보다 높다. 남미 국가들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멕시코가 각각 2% 대 80%, 중미가 1% 대 36%, 카리브가 3% 대 45%로 여전히 대미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높다. 중남미 전체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도 앞서 살펴본 2019년 수치와 비슷한 11% 대 45%로 대미 수출 비중이 아직 훨씬 더 높다(CEPAL 2018a, 58).

2 중국과의 총교역량은 2020년 코비드-19로 감소 후 2021년 다시 증가해 2021년 현재 4516억 달러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2019년 통계로 평가하더라도 최근 상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출처: El Peruano 2020.11.8

그림 1. 중남미의 대중, 대미 교역

수출의 내용을 보면 중남미 대중 수출의 96%가 1차 산품(대미 수출은 27%) 혹은 1차 산품 가공품(중국 79%, 미국 17%)으로 1차 산품 관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CEPAL 2018a, 71).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과의 교역은 1차 산품 수출 경제를 보다 심화함으로써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들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대중 교역은 2000년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세계 성장 동력을 중국이 주도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해 2013년에 정점을 이뤘다. 그러나 그 후 중남미의 대중 교역은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고, 2017년부터 다시 조금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2019년 이후 다시 감소(-0.1%)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시기에는 2020년 급감(-8.0%)했다가, 2021년 다시 급증(12.8%)했으나 2019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과적으로 중남미의 대중 교역은 2013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했으나 그 후에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2013년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CEPAL 2021a, 81).

어쨌든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교역 부문에서 중국의 부상은 놀라운 수준이다. 교역 부문만 놓고 본다면 최소한 남미에서 중국이 사실상 미국의 헤게

모니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Fornés and Mendez(2018, 232)에 따르면 경제적 영향력에서 교역은 직접투자나 대출에 비해 그 무게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무역은 장기적으로 중남미의 중국 의존을 심화시키지 않는다. 수출 시장을 바꾸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역 관계는 직접투자에 비해 대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투자도 물론 채무관계에 비해 대체가 쉽다. 수출 시장을 옮기는 것은 몇 주도 안 걸리지만 대출을 갚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채무국은 채권국에 얼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와 대출부문을 살펴봐야 한다.

직접투자

중국은 2000년대 이전에는 외환보유고 증가와 중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지양했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자원 확보 차원에서 대표 국영기업들의 자원 개발 분야 해외 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시작했다. 투자는 주로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중국의 중남미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는 중국의 대중남미 무역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중국의 대중남미 투자에 질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 따라 중국의 생산모델이 첨단기술 산업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중남미 1차 산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따라서 중국과 중남미의 경제적 관계의 중심도 교역에서 투자로 발전했다. 소위 ‘1-3-6 전략’은 하나의 상호 결합된 협력 방안에 따라 교역, 투자, 금융 세 분야를 통해 에너지, 인프라, 농업, 제조업, 과학, IT 여섯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2018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 2회 중국-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 포럼에서 시진핑이 중남미도 ‘BRI’에 참여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더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BRI’가 ‘디지털 실크로드’로 발전함에 따라 중남미에서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도 본격화되었다.³

중국의 중남미 투자가 대부분 기존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은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중남미 인수합병 규모 상위 10건 중 5건이 중국에 의한 것이었으며, 2020년에는 상위 10건 중 1위와 3위가 중국에 의해 이루어졌다.⁴ 따라서 직접투자 중 인수합병만 본다면 최근 중남미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총 500억 달러 중 중국은 200억 달러로 37%, 2018년 총 350억 달러 중 중국은 70억 달러로 19% 수준에 달한다(CEPAL 2019, 45).

그러나 직접투자는 존재하는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방식(brownfield)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는 방식(greenfield)도 있으며,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방식(자본출자), 법인이나 기업에 5년 이상 장기투자를 제공하는 방식(장기 대출), 그리고 기존에 투자한 기업의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중남미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작은 편이다. 수치를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중남미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이 2014년 1394억 달러, 2015년 1318억 달러, 2016년 1264억 달러, 2017년 1189억 달러, 2018년 1316억 달러였는데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각각 2014년 110억 달러(7.8%), 2015년 40억 달러(3.0%), 2016년 40억 달러(3.2%), 2017년 200억 달러(16.8%), 2018년 70억 달러(5.3%) 수준에 불과하다(CEPAL 201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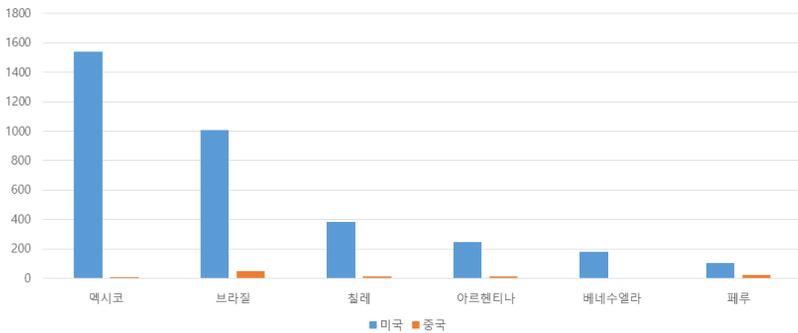
또한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에서 2017년까지 중국의 중남미 직접투자의 55%(655억 달러)가 브라질, 17%(201억 달러)가 페루, 9%(110억 달러)가 아르헨티나로 이들 세 나라에 81%가 집중되어 있다. 이들 세 나라가 중남미 전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수치이다. 특히 페루는 경제규모에 비해 중국 직접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CEPAL 2018b, 56).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국가별로 미국과 중국의 중남미 직접투자 누적

3 실제로 2018년까지 1억 달러 이하였던 중국의 디지털 분야 대 중남미 투자는 2019년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화웨이는 브라질에 8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폰 공장을 설립했으며 나아가 5G와 정보 수집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분야 중국의 중남미 진출에 대해서는 Ellis (2022)와 Hillman(2022)의 글 참조.

4 중국의 중남미 인수합병 중 투자액에서 최대는 2017년 중국의 국가전력망공사(State Grid Corporation)가 브라질의 CPFL을 99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다. CPFL은 현재 브라질 네 번째 전력공급사이다.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2020년에는 칠레에서 미국소유의 Chilquinta Energía S.A. 와Tecnored S.A.를 22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2020년 중남미 인수합병 3위 건이다(CEPAL 2021b, 34; 116).

총액을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페루는 미국의 1030억 달러 대비 220억 달러로 미국의 21.4%를 차지한 반면 중국의 직접투자가 집중된 브라질에서조차 미국의 1조 70억 달러 대비 중국은 490억 달러로 미국의 4.9%, 아르헨티나에서도 미국의 2470억 달러 대비 중국은 130억 달러로 미국의 5.3%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중국의 투자가 많지 않은 멕시코에서는 미국이 1조 5400억 달러에 비해 중국은 70억 달러로 미국의 0.5%, 칠레는 미국이 3860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110억 달러로 2.8%,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1830억 달러에 비해 중국은 30억 달러로 1.6%에 불과하다.



출처: USC US-China Institute(2020)

그림 2. 미국과 중국의 중남미 주요국 직접투자, 2000-2018, 단위 10억 달러

그러다 보니 중남미 100대 기업 중 역외 다국적 기업들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총 30개 중 미국계가 14개(월마트 멕시코 7위, GM 멕시코 17위, 쉘로그 멕시코 34위, 번지 브라질 36위 등), 이탈리아계가 5개, 일본계가 2개, 프랑스계가 2개, 독일계가 2개, 한국계가 2개(삼성전자 멕시코 65위, 삼성전자 브라질 75위),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계가 각각 1개인 반면 중국계 기업은 아직 하나도 없다(América Economía 2018.11.9.).

관련하여 Ellis(2018, 12-23)는 2018년 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보고서에서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중국이 중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CNPC, Sinopec, CNOOC)이 미국의 엑손이나 쉘브론의 규모에 도달해야 하며, 광

업 분야에서는 중국 광산회사들의 비중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유럽 국가들 각각의 비중 정도가 되어야 하며, 농업분야에서는 중남미 농업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카길이나 번지와 같은 4대 메이저 중 최소 하나가 중국 기업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의류에서 자동차, 가전까지 중국 기업들이 중남미 100대 기업에 들어와야 하며, 금융업 분야에서는 소매금융서비스업에서 중국은행들이 유럽은행과 경쟁할 수준이 되어야 하고, 디지털 분야에서도 화웨이나 중신통신(ZTE)이 5G 통신망 건설 등을 통해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텔레포니카, 아메리카 모빌, AT&T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과 애플과 경쟁할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Ellis는 중국이 현 수준의 투자를 지속한다면 2050년 무렵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게다가 중국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에너지, 광업, 농업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중남미 경제의 1차 산품 의존을 심화시키고, 중국이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중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활용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원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면이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환경이나 노동조건의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환경문제나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중남미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부터 완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남미의 무역과 투자 관계는 1차 산품 개발과 수출에 집중된 중국과 중남미의 관계보다 훨씬 다각적이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미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상당 부분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산품 수출 경제에서 탈피해 제조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중국보다 미국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이 지역 경제의 1차 산품 수출 경제 활성화가 아닌 제조업 발전 기여로 나아가지 않는 한 중국과 중남미의 무역과 직접투자는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대출

경제적 영향력이란 측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대출이다. 대출은 앞서 살펴본 수출이나 직접투자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다. 대출로 인한 경제적 의존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IMF의 대출이 국내 경제 정책에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대출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중국의 대출이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나 채무국의 채권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에서 대대적인 대출 공세에 대해 ‘부채 함정 외교’라고 비판하면서 견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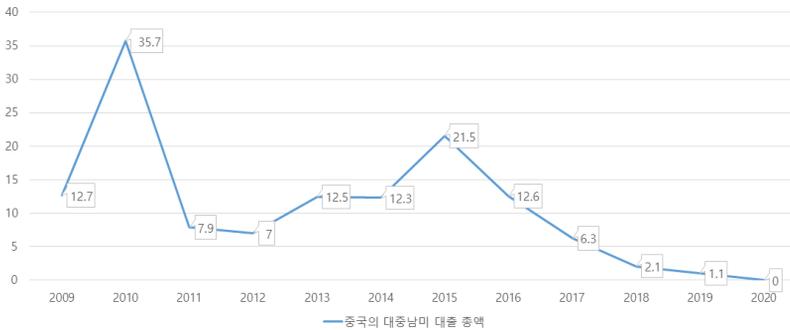
중국의 중남미 국가 대출은 대부분 중국개발은행(CDB)나 중국수출입은행(CHEXI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중국 붐을 경고한 Gallagher(2016, 70)에 따르면 중국은 ‘위안화 외교’를 통해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중남미 15개국에 총 1190억 달러를 대출했다. 이는 같은 시기 IDB의 700억 달러와 세계은행의 67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중남미 전체 대출에서 중국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대출액을 중남미 전체 기타투자수지(자본 및 금융수지 항목 중 대출, 포트폴리오 투자, 원조 등을 포함한다)와 비교해 보면, 일단 2005년에서 2014년 10년간 중국의 중남미 대출이 1190억 달러로 이를 10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12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런데 중남미 전체 기타투자수지는 2012년 440억 달러, 2013년 360억 달러, 2014년 850억 달러 수준임으로 중국의 대출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CEPAL 2021c, 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 중남미 대출 또한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서 2016년 중국의 대 중남미 대출 자금 중 93%가 베네수엘라(44%), 브라질(26%), 에콰도르(12%), 아르헨티나(11%) 네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CEPAL 2018b, 22).

이들 중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를 제외하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중국의 대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경제 규모는 크지만 전통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멕시코를 비롯해 콜롬비아, 칠레와 같은 나라들에 대한 대출은 거의 없다. 결국 중남미에서 중국의 대출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도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처럼 반미좌파 성향의 정부가 있었던 일부 국가에 집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대중남미 대출은 아래 그림 3.에서 보듯이 2010년 357억 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1년 급감해 79억 달러를 기록 후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5년 215억 달러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중국의 대 증남미 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코비드-19 이전인 2019년에 이미 2015년 대출의 20분의 1도 안 되는 11억 달러까지 감소했으며, 코비드-19가 발생 후인 2020년에는 마침내 0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 Bloomberg 2022.2.22

그림 3. 중국의 대 증남미 대출 총액(단위 10억 달러)

그와 관련해 뉴욕 연준 경제학자인 카플란(Stephen Kaplan)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시장 극대화를 위해 대출 대상국에 긴축재정 요구와 같은 정책 조건 부과나 내정 간섭과 같은 위험 헤지 수단 없이(일부 대출은 천연자원을 담보로 함) 대출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부채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 상환 확보가 어려운 “채권자의 함정”의 빠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이 앞으로 국가 간 대출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loomberg 202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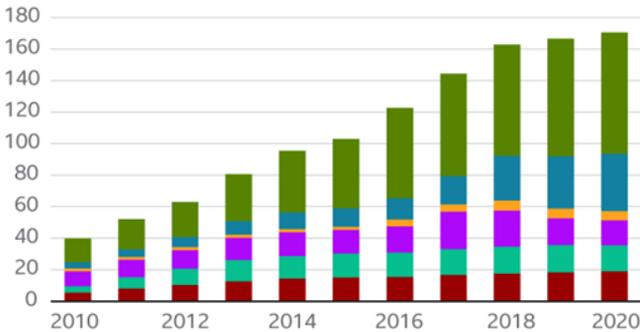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4.는 중국의 개도국 대출이 모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개도국 전체 대출은 대중남미 대출과 달리 코비드-19, 중국 경제의 내부적 어려움, 미-중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되었지만 그래

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출은 2018년에 급증 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은 2014년 정점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동 북아프리카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도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정점에 달한 이후 증가세가 완화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2018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대 중남미 대출의 감소가 코비드-19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른 중국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China's lending has been growing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debt to China, billions of US dollars

- East Asia and Pacific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Europe and Central Asia
- South Asia
- Latin America and Caribbean
- Sub-Saharan Africa



Source: World Bank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출처: BBC News 2022.1.6

그림 4. 중국의 개도국 대출 지역별 증감 추세

어쨌든 2019년 이전에도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 대출에 대한 의존도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았다.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중국에 대한 부채가 GDP의 25%를 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4개국) 중남미 국가들 중 중국에 대한 부채가

전체 GDP의 25%를 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중남미 국가들 중 중국에 대한 부채의 비중이 가장 많은 나라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3개국으로서 이들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부채는 GDP의 10-25% 수준이다. 중국에 대한 부채가 GDP의 5-10% 수준인 중남미 국가도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5개국에 불과하다(The Economist 2019.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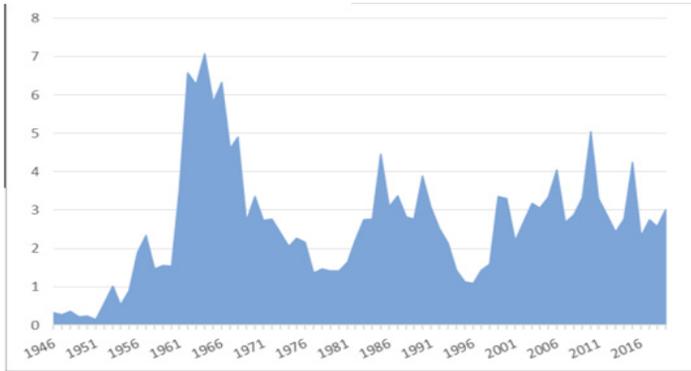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든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 변화이든 최근 중국이 중남미에 대한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 또한 중국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최근 스리랑카 등의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경제적 위기가 발생 시 IMF나 국제 투자기관들이 자신의 추가적 혹은 긴급 대출이 중국 대출의 상황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자금 공여를 꺼려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보면서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 대출에 대한 의존도 심화의 문제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앞으로 중국의 대 중남미 대출에 대한 새로운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

아래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은 1960년대 쿠바 혁명 이후 중남미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를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에 크게 감소했으나 1980년대 니카라과 혁명 이후 또 다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다시 감소했다가 2000년대에 마약 이민 등의 문제 해결책으로 다시 증가했다. 미국의 대 중남미 공적 원조액은 2019년 달러 가치 기준 1960년대에는 연간 70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와 2000년대에는 연 평균 약 30억 달러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국무부 공식적 국가별 원조⁵⁾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콜롬비아가 약 4억 불 수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이티가 2억 불 수준으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중미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각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각각 4위, 5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카리브 국가 중에는 쿠바와 도미니

5 국무부의 공식적 원조액은 2018년 기준 총 16억 6844만 달러로 그림 5.에 나타나는 원조 총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출처: CRS 2021, 3

그림 5.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1946-2019, 2017년 달러 가치 기준: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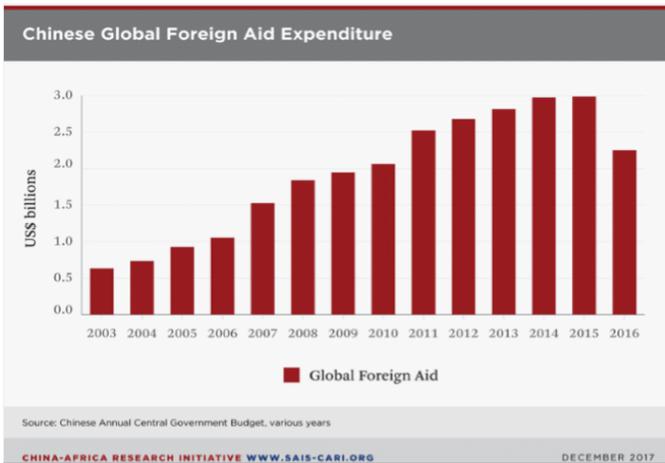
카공화국이 2천 만 달러 수준으로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그 외 멕시코(약 1억 5000만 달러), 페루(약 7500만 달러), 베네수엘라(약 1500만 달러), 브라질(약 1000만 달러)도 각각 3위, 6위, 10위, 11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공식 원조를 받고 있다(CRS 2021, 8-9).

한편 Maggiorelli(2017, 30-34)에 따르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원조는 6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1956-1969년 사이로 주로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의해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소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 2단계는 1970-1978년 시기로 마오쩌둥의 제3세계 혁명 전략에 따라 중남미를 포함한 제 3세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크게 증가했다. 3단계는 1979-1989년 시기로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은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하면서 대외원조도 실용적 차원에서 개편했다. 4단계는 1990-1995년 시기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외교적 지지를 위해 중국은 대외원조를 크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타이완을 상대로 외교적 지지를 위한 원조 경쟁을 벌였다. 5단계는 1996-2005년 사이로 낮은 이자율에 다양한 특혜를 가진 대출 중심의 금융을 통한 대외지원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마지막 6단계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로 이 시기에 중국의 중남미 지원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5년 시진핑이 중남미와 1+3+6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대 중남미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대 중남미 공식적 원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중국은 관련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원조 관련하여 백서를 발표한 것은 2011년과 2014년뿐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남미 공적 원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양허성 차관⁶을 전체 대출 총액에서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중국 중남미 공적 원조의 총액을 정확히 제시한 자료는 없지만 Yin Qian 이 중국아프리카 연구 이니셔티브(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자료에 따라 정리한 것에 의하면 중국의 세계 원조 총액은 아래 그림 6.에서 보듯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 14% 수준에서 지속적 증가를 보여준다. 그 결과 2015년 중국의 세계 총 원조액은 30억 달러에 달했고, 2016년 23억 달러 수준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2017년에는 다시 25억 달러를 넘어섰다.



출처: Yin Qian 2019

그림 6. 중국의 세계 원조 총액(단위: 십억 달러)

Maggiorelli(2017, 38)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6년 시기에 중국의 대외 원조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다음으로 크며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에 따라 중남미에 대한 공적

6 공적 원조는 크게 무상 지원, 무이자 대출과 양허성 차관으로 나뉜다. 전체 대출 중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에서 일반 시중 대출과 비교하여 증여율이 25% 이상인 경우 양허성 차관으로 분류한다. 중국의 대 중남미 대출의 대부분이 국영은행들에 의한 좋은 조건의 대출이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양허성 차관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원조액을 추정해보면 2015년 기준 전체 30억 달러의 20%면 약 6억 달러 수준으로 이 시기 미국의 대 중남미 원조액 연평균 30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군사력 측면에서 미중의 영향력 평가

중남미에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글로벌화 전략에 따라 진행되었다. 인민해방군의 글로벌화는 세계화에 따라 세계 각지로 진출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핵심 관심 지역은 주로 에너지 수송과 관련하여 ‘BRI’의 주변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중남미는 중국의 군사적 진출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적 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위협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세계 각지에 중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 전역에 90개 이상의 항구를 부분적 혹은 완전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중남미에는 아래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통제하는 항구가 11개 있다.



출처: BBC News 2021.10.15

그림 7. 중남미에서 중국 기업들에 의해 통제되는 주요 항구들

이러한 항구들은 평상시에는 선박에 대한 연료보급, 보급품 보충, 선박 수리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유사시에는 군사시설이나 무기보관 시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잠재적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사실 중남미에서 중국은 지정학적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수사나 도발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중남미에서 자국 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BRI'가 중남미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이 투자한 시설의 안전을 위해 최근 중남미에서도 인민해방군의 관여가 증가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남미 국가들 군과의 유대 형성을 위한 인적 교류 활성화와 중국산 무기 판매 및 기술 공유 차원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설득해 중남미에서 인민해방군의 비행장이나 항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할 수도 있고, 일부 국가는 미국과 맞서는 선택을 하면서 자국 영토 내에 중국 군사시설을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llis(2020, 2-8)는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과의 군사관계를 정부 성향에 따라 4개의 부류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국가들은 반미 성향의 포플리스트 정부가 존재하는 국가들(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로서 이들은 중국 군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군 인사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다각적 외교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국가들(페루, 우루과이, 일부 카리브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도 현재 중국 산 무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군 인사 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페루는 최근 중국에서 인민해방군과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세 번째 그룹은 중국을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파라과이, 벨리즈, 온두라스⁷, 과테말라,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로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등 중국과 경제적 군사적 교류는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미 성향의 국가들(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로서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장비 구입은 물론 안보 상 위협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5G 망 건설도 거부한다.⁸

7 온두라스는 2023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대만과 외교관계를 공식 단절했다.

중남미에서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관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에 최소한 45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한 반면은 중국은 아프리카의 지부티 한 곳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는 1차, 2차 세계대전 등 다양한 전쟁에 참전한 결과이며 사실상 해외 군사기지 획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부티의 중국 군사 기지는 석유 수송로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가능했다. 2018년부터 중국은 아시아의 캄보디아, 중동의 아랍 에미리트,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태평양의 솔로몬제도과 바누아투 등 5개국에서 군사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중남미에서는 그러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⁹

Chomsky(2016)는 비록 동아시아, 동유럽, 이슬람권에서 미국이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패권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남미에서 군사적 헤게모니는 미국의 절대적 레드라인이다.

그를 위해 미군은 현재 파나마에서 마이애미로 본부를 이전한 중남미 관할 미 남부사령부(Comando Sur)¹⁰ 아래 쿠바 관타나모에 약 2000명, 온두라스에 약 400명, 푸에르토리코에 약 700명, 콜롬비아에 약 100명, 에콰도르에 약 10명의 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Namu.Wiki 2022).

또한 미국은 ‘리우조약’(Rio Treaty)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공식적인 방위 공약을 맺고 있다. 리우조약은 1948년 발효된 서반구 군사동맹조약으로 미주지역 일국에 대한 공격은 미주 국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공동 방위 조약이다. 2004년 멕시코, 2012년 볼

- 8 물론 친미 성향을 가진 국가인 칠레와 콜롬비아에 최근 좌파 정부가 집권한 것이 이러한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9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에 최근 건설된 중국우주기지는 대형 안테나를 통해 위성과 우주선을 모니터링 하는 우주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위성, 미사일 발사, 무인 항공기 이륙 등을 탐지하는 군사적 목적의 레이더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해 미 국방부는 인근에 위기관리센터(EOC)를 설립해 견제하고 있다. 이는 중남미에서 미국은 군사적 차원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일말의 위협 요소도 허용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10 1999년 말 파나마 주둔 미국 남부 사령부는 해체되고 이전했지만 기존의 군사기지는 ‘작전전진 포스트’(FOL) 혹은 ‘안보협조 포스트’(CSL)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2009년에는 ‘콜롬비아 플랜’에 따라 콜롬비아에도 ‘포스트’라는 이름으로 7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이러한 기지들은 필요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에 대한 긴급 군사 작전을 수행할 전진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Lemoine 2010).

리비아, 쿠바,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2019년 우루과이 등이 이 조약에서 탈퇴했지만 현재 1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이러한 공동 방위조약은 전무하다.

미국은 중남미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안보적 차원의 군사적 관여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오바마 정부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과 군사적 통제 측면에서 중남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좌파 게릴라와 마약 대처를 위해 ‘콜롬비아 플랜’에 따라 콜롬비아에서 군사훈련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대표적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반미성향 정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물론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군사 쿠데타와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극우 네오콘, CIA, 보수 재단과 싱크탱크들의 주도로 중남미에서 반미성향 정부들을 지속적으로 흔드는 ‘정권 불안정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베네수엘라 반차베스 군사 쿠데타, 2014년 베네수엘라 시위, 2010년 에콰도르 반 코레아 경찰 불복종 사건, 2009년 온두라스 셀라야 강제 해임, 2012년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 해임, 2008년 볼리비아 미디어 루나 주들의 자치선언과 유혈 시위 등등의 사태에 미국 개입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순수하게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Lemoine 2014).

비록 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 진출과 함께 군사적 관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군사적 부문에서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 등에서 미중 무력 분쟁이 발생 시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전선의 후방에서 미국의 안전이 다소 위협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남미에서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 파워

서구의 한 부분인 중남미에서 중국 소프트 파워의 한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우려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중남미에

서 중국의 부상을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중국은 경제적 진출을 넘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를 피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중남미에 경제적 진출을 강화할 때 미국의 이해관계가 확고한 국가들에 개입하는 것을 피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고 무관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중남미에서 친중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¹¹

경제적 진출을 넘어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은 기본적으로 세계화 속에서 국가주도 산업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중국의 ‘발전국가’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서구의 ‘시장 합리적 규제국가’(Market-rational regulatory state)와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 이념국가’(Plan-ideological state)의 대결에서 벗어나 제 3의 유형인 ‘계획 합리적 개입국가’(Plan-rational interventional state)를 제시함으로써 중남미 지역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근대화 이론’, ‘중속이론’, ‘신고전주의 발전론(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중국은 ‘남-남 협력’, 신흥시장 국가 간 협력, ‘베이징 컨센서스’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세계 시장경제 질서를 넘어 보다 공정한 세계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이 같은 전략들¹²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중남미의 많은 정부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혹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대안으로서 중국식 모델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나 보다 공정한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냐의 소프트 파워 경쟁에 있어서 중국은 초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조건 없는 후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중국은 미국의 헤게모니

11 Urdinez(2017)는 중남미 국가 별로 미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경제적 진출의 반비례 관계를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영향력이 큰 나라(멕시코, 콜롬비아, 중미와 카리브 국가들)일수록 중국의 경제적 진출(공산품 수출, 국영기업 직접투자, 대출)이 적고,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쿠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일수록 중국의 경제적 진출이 많다.

12 관련한 중국의 전략은 Fornés and Mendez(2018) 참조.

아래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 매력적 대안으로 다가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약속하고 조건 없는 저리 대출을 통해 개도국들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BRI’는 경제적 목적을 넘어 중국이 전후 세계 질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가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 분석 전문가인 Hamilton and Ohlberg(2021, 201-202)는 ‘BRI’의 목적이 단순히 기업 활동과 경제적 진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제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BRI’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양 지역의 싱크탱크들, 언론 매체들, 문화 기구들, 자매 도시들의 연결과 교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국은 세계화에서 소외당했다고 느끼는 나라들에게 ‘포용적 세계화’ 모델을 제시하면서 ‘상생 협력’을 통해 ‘미래를 공유하는 협력체’를 형성한다는 새로운 국제질서 담론을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Nye(2021, 320)는 중국의 GDP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경제력은 권력 평가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중국은 군사력이나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아직 미국에 훨씬 뒤져있다고 주장한다. 나이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현 시진핑 정부의 ‘베이징 컨센서스’보다 냉전 시대인 1960년대 마오쩌둥의 사상이 가치적 측면에서 더 큰 파급력을 가졌었고 보다 위협적이었다고 평가한다.

Nye(2021, 315-343)의 주장에 따르면 시진핑의 중국은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개도국 중심으로 자신들의 발전 모델에 기초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나이는 중국식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지금과 다른 형태의 살 길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열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없는 한 중국식 모델이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이는 서구 문화 전통의 영향 아래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특별한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 중국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가치만을 두고 볼 때

13 중국은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해 문화, 교육, 과학 분야의 상호 교류, 공자학원, 중국 정부 장학생, 인턴십, 청년 리더 교환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 선호하는 국가 형태로 중국식 권위주의 모델보다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서구문화에 속하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서구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중남미에도 서구의 뿌리 깊은 ‘황화론’이 존재한다. 황화론은 역사적으로 혼족과 몽골족의 서양 정복에서부터 시작된 서구의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중국을 불가사의하고, 공포감을 주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는 전통적 시각을 말한다. 이러한 ‘황화론’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서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2010년 이후 중남미에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이런 황화론이 약하지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¹⁴

중남미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환경오염 야기, 채굴산업 투자의 부정적 영향, 중국 이민의 대량 유입, 위생 문제와 식습관 등 문화적 차이 등은 전통적 ‘황화론’과 결합해 중남미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으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Armony and Velásquez(2015, 141-142)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전통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새로운 정보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보다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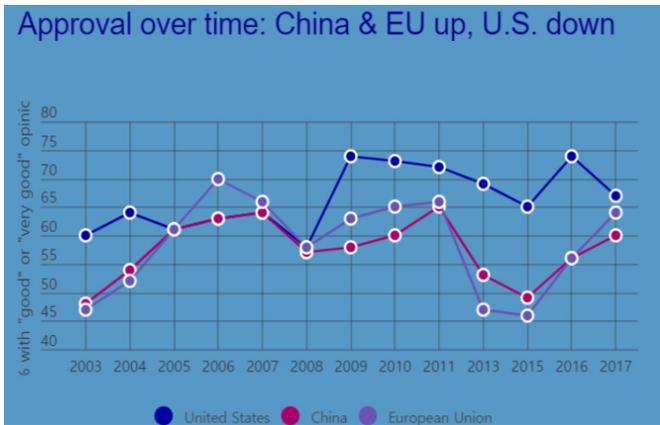
중남미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2019년 Pew Research Center(2019)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인식보다 호의적 인식이 여전히 높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서 중국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각각 51%, 50%, 47%인 반면 부정적 태도는 각각 27%, 22%, 24%이다. 이는 세계 주요 34개국 평균인 호의적 태도 40%, 부정적 태도 41%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의적 태도는 높고, 부정적 태도는 낮다. 이는 중남미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임을 말한다. 중국 투자에 대한 호의적 태도도 멕시코

14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2020년 작 아르헨티나 영화 <신의 분노(La Ira de Dios)>에서는 영화 중 기자들의 대화에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는 연쇄 방화 사건의 배후에 화재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입하기 위한 중국 마피아의 존재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대화가 나온다. 비록 ‘소문’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비록 영화 속이라고 해도 그러한 소문 자체가 발생한다는 것이 중남미에서 ‘황화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가 61%, 브라질이 59%이고 부정적 태도는 각각 30%, 29%로 세계 주요 개도국 16개국 평균 호의적 52%, 부정적 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다.¹⁵

그러나 중남미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부정적 시각보다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의 수준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한다. 2017년 *Latinobarómetro*에서 조사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도 변화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 대한 지지도는 부시 정부 임기 말 58% 수준까지 하락했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 74%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67%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지지도는 2003년 48% 수준이던 것이 교역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64%에까지 올랐다가 교역 증가가 주춤해진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49%를 기록했다가 투자 증가와 함께 다시 증가해 2017년 60%를 기록했다(González 2017).



출처: González 2017

그림 8. 미국과 중국에 대한 중남미의 지지도 변화

이는 중남미에서 미국의 지지도가 미국 정부의 성향과 외교정책에 따라 변화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지지도는 경제적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15 2019년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호의적 43% 대 부정적 47%로 부정적 견해가 높게 나왔다.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중남미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았던 트럼프 정부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67% 대 60%로 전자가 여전히 높다. 심지어 오바마 정부의 시기에 중남미의 미국에 대한 지지도와 중국에 대한 지지도의 격차는 15% 이상이었다. 이는 중남미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지도가 등락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지지도가 항상 중국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Piccone(2016, 14-15)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UN에서 중국과 미국이 반대 입장을 취한 37개 안전에 대한 투표에서도 미국에 대한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특별 이해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사안일수록 미국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를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라고 답한 사람이 멕시코는 71%, 브라질은 65%, 아르헨티나는 54%인 반면 중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28%, 35%, 24%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도 미국이라고 답한 사람이 브라질은 32%, 멕시코 27%, 아르헨티나 15%인 반면 중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8%, 16%, 7%에 불과하다. 이는 동맹 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공간을 중국이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Pew Research Center 2019).¹⁶

또한 최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밴드빌터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정부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평균 신뢰도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9.에서 보듯이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2년 57.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2019년에 47.3%를 기록했다.¹⁷ 이는 소프트 파워 증가를 위한 중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6 미국과 중국 외에 이들 국가들이 주요 동맹 국가로 꼽는 나라로 브라질은 없고, 멕시코는 10%가 캐나다를 아르헨티나는 역시 10%가 브라질을 꼽았다.

17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50%를 넘는 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71.6%), 아르헨티나(59.9%), 파라과이(59.5%), 페루(53.6%), 코스타리카(53.0%)이고, 40% 이하인 나라는 브라질(40.0%), 콜롬비아(39.2%), 볼리비아(35.9%), 파나마(31.6%)이다.

고 중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신뢰 증가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⁸



출처: Asen 2020

그림 9. 중남미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 변화

게다가 미국이 중남미에 대해 최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를 전략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파트너로 간주하는 것에 비해 중국은 스스로 정체성을 개도국으로 정하고 개도국들 혹은 신흥시장국가들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우선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한다. 중국에 있어서 개도국들의 중요성은 먼저 ‘전략적 주변(개도)국으로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우선이며, 다음으로 대 주변(개도)국으로서 서아시아, 남태평양,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중남미는 역시 대 주변(개도)국으로서 그 외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2015년부터 중국의 관심 국가로 편입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중국의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Shambaugh 2021).

중국에게 중남미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거나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지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남미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 확대와

18 중국은 자국 소프트 파워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분포하는 화교를 통한 지역 엘리트들과의 유대형성, 지역 정당, 정치인, 정치지방생에 대한 지원 등등의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샤프 파워’를 가동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는 아직 크지 않아 보인다(The Economist 2022).

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목표가 우선이다.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은 미국의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에 대한 대응카드로서 중남미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중국에게 중남미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관여하듯이 중국도 미국의 뒤뜰로 여겨지는 중남미 국가들에 관여한다는 일종의 워싱턴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차원으로 이해되어 진다. 따라서 미중갈등의 심화로 세계가 양분화 되는 신 냉전 체제로 나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1990년대 후반 중남미에서 미국을 대신해 가장 각광받는 파트너로 부상하던 일본이 미국의 견제와 자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남미에서 갑자기 손을 떼 것처럼 중국도 중남미에서 언제든지 갑자기 후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론

2000년대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4년 후진타오가 칠레에서 개최된 APEC회의 때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쿠바를 방문해 ‘범태평양 시대’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미국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미래에 중국이 중남미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중남미의 새로운 ‘기회의 친구’(Friends of opportunity)로 간주되면서 경제적 차원에서 먼로주의가 종식되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중남미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틀 속에서 중국과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중남미가 미국과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생겨났다.

2013년 시진핑 등장 이후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전략이 점차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역과 투자를 넘어 대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자 이때부터 미국은 중남미에서 중국의 진출을 지정학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트럼프 등장 이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중남미에 무관심해 하는 동안 중국은 중남미의 ‘BRI’ 참여를 제안하고, 반미국가들인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CELAC 포럼을 실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때부터 중국의 중남미 미국 헤게모니 위협에 대한

언급들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존 볼튼(John Bolton)과 같은 자유주의 패권 추구 세력들은 다시 먼로주의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에서 중국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경제적 진출 확대가 중남미 정부들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은 아니다. 중국의 대출 비중이 크지만 미국은 국제금융기구들(IMF, 세계은행, IDB 등)을 통해 여전히 중남미의 돈 줄을 쥐고 있으며,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의 진출은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 교역 수준에서 중국의 부상은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중국의 경제적 진출에 따른 부정적 효과들이 나타남에 따라 소프트 파워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노력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중남미에서 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놓여있다. 중국이 중남미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야망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중남미에서 중국이 급속도로 자신의 존재를 축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중남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좌파 정부들이 중국식 국가개입주의 발전 모델에 호의적 태도를 보일 수는 있다. 또한 주권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좌파 정부들의 외교 전략으로 인해 미국의 일방적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조차 앞서 살펴본 중남미에서 미국의 군사적 차원에서 압도적인 하드 파워로 인해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América Economía, 2018.11.9, “Conozca las 500 Empresas más Grandes de Latinoamérica 2018,”
<https://www.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conozca-las-500-empresas-mas-grandes-de-latinoamerica-2018>
- Armony, Ariel C. and Nicolás Velásquez(2015), “Percepciones antichinas en las comunidades virtuales latinoamericanas”, *Nueva Sociedad*, No. 259, septiembre-octubre, pp. 129-142.
- Asen, Eric(2020), *Enfoque en la confianza en el gobierno de China en Latinoamérica y el Caribe*, USAID/Vanderbilt University,
<https://www.vanderbilt.edu/lapop/spotlights/Spotlight-Asen-MIL10A-spa-final.pdf>
- BBC News(2021), “La estratégica red de puertos que China controla en el mundo y cómo está avanzando en América Latina”, 2021.10.15
<https://www.bbc.com/mundo/noticias-58849114>
- _____ (2022a), “China: Is it burdening poor countries with unsustainable debt?”, 2022.1.6 <https://www.bbc.com/news/59585507>
- Bloomberg(2022b), “How China Beat Out the U.S. to Dominate South America.” 2022.2.1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2-17/china-is-south-america-s-top-trading-partner-why-can-t-the-us-keep-up#xj4y7vzkg>
- _____ (2022c), “China Faces ‘Creditor Trap’ in Lending to Latin America: Q&A,” 2022.2.2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2-22/china-faces-creditor-trap-in-lending-to-latin-america-q-a>
- CEPAL(2018a), *Perspectivas del Comercio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8*, Santiago de Chile: CEPAL.
- _____ (2018b), *Explorando nuevos espacios de cooperación entr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y China*, Santiago de Chile: CEPAL.
- _____ (2019),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9*, Santiago de Chile: CEPAL.
- _____ (2021a), *Perspectivas del Comercio Internacional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21*, Santiago de Chile: CEPAL.
- _____ (2021b),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21*, Santiago de Chile: CEPAL.
- _____ (2021c),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 2021, Santiago de Chile: CEPAL.
- Chomsky, Noam(2016), “The costs of violence”, *Le Monde diplomatique. Korea*, May 30.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U.S. Foreign Assistance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FY2021 Appropriations*, CRS.
- Ellis, Evan(2009), *China in Latin America: The Whats and Wherefores*, Boulder: Lynne Rienner.
- _____ (2018), *The Future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China*, USA: CSIS.
- _____ (2020), *Chinese Security Engagement in Latin America*, USA: CSIS.
- _____ (2022), “The Risks of Chinese Engagement in the Americas”, *Diálogo Américas*, April 18,
<https://dialogo-americas.com/articles/the-risks-of-chinese-engagement-in-the-americas/>
- El Peruano(2020), “La creciente importancia de China en América Latina”, 2020.11.8,
<https://elperuano.pe/noticia/100974-la-creciente-importancia-de-china-en-america-latina>
- a
- Fornés, Gastón and Philip Alan Butt(2012), *The China-Latin America Axis: Emerging Markets and the Future of Globalis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ornés, Gastón and Alvaro Mendez(2018), *The China-Latin America Axis: Emerging Markets and their Role in an Increasingly Globalised World*,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unk, Kevin(2013),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America’s Global South Relations: States, Transnational Capital, and Social Movements.” *Latin Americanist*, Vol.57, No.1, pp. 3–20.
- Gallagher, Kevin P.(2016), *The China Triangle: Latin America’s China Boom and the Fate of the Washington Consens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nzález, Elizabeth(2017), “Weekly Chart: How Latin America Views the United States in the Trump Era”, *AS/COA*,
<https://www.as-coa.org/articles/weekly-chart-how-latin-america-views-united-states-trump-era>
- Grabendorff, Wolf(2018), “América Latina en la era Trump. ¿Una región en disputa entre Estados Unidos y China?”, *Nueva Sociedad*, Mayo-junio, pp. 47-61.
- Hamilton, Clive and Mareike Ohlberg(2021), *Hidden Hand*, Korea: Sillebooks.
- Hearn, Adrian H. and José Luis León-Manríquez, eds.(2011), *China Engages Latin America: Tracing the Trajectory*, Boulder: Lynne Rienner.
- Hillman, Jonathan E.(2022), *The Digital Silk Road: China’s Quest to Wire the World*

- and Win the Future*, Korea: Connecting.
- Hsiang, Antonio C.(2016), "Power Transition: The U.S. vs. China in Latin America", *Journal of Chin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pecial Issue, pp. 44-72.
- Lemoine, Maurice(2010), "'Basus belli' in Colombia", *Le Monde diplomatique. Korea*, April 9.
- _____ (2014), "In Latin America, the era of quiet coups", *Le Monde diplomatique. Korea*, July 28.
- Maggiorelli, Lorenzo(2017), "Chinese Aid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volution and Prospects", *Revista Internacional de Cooperación & Desarrollo*, Vol 4, No. 2, pp. 28-50.
- Namu. Wiki(2022), "U.S. troops stationed overseas", *Namu.Wiki*, <https://namu.wiki/w/%ED%95%B4%EC%99%B8%20%EC%A3%BC%EB%91%94%20%EB%AF%B8%EA%B5%B0>
- Nye, Joseph S.(2021),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 to Trump*, Korea: Myunginbooks.
- Organski, A. F. K.(1958),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 Pew Research Center(2019), *China's Economic Growth Mostly Welcomed in Emerging Markets, but Neighbors Wary of Its Influence*,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9/12/05/views-of-the-balance-of-power-between-u-s-and-china-2019/>
- Piccone, Ted(2016), *The Geopolitics of China's Rise in Latin America*, USA: The Brookings Institution.
- Prashad, Vijay(2007), *The Darker Nations: A People's History of the Third World*, New York: New Press.
- Roett, Riordan and Guadalupe Paz, eds.(2008), *China's Expansion into the Western Hemisphere: Implications for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hambaugh, David(2021), *China and the World*, Korea: Myunginbooks.
- Smith, Peter H.(2012), *Talons of the Eagle: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Economist(2018), "China moves into latin America," 2018.2.1, <https://www.economist.com/the-americas/2018/02/03/china-moves-into-latin-america>
- _____ (2019), "A new study tracks the surge in Chinese loans to poor countries," 2019.6.13.,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9/07/13/a-new-study>

- tracks-the-surge-in-chinese-loans-to-poor-countries
_____ (2022), “Chinese political interference has Western spooks worried.”
2022.4.21,
<https://www.economist.com/china/2022/04/21/chinese-political-interference-has-western-spooks-worried>
- The National Interest(2019), “The United States is Losing Latin America to China,”
2019.8.15.,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united-states-losing-latin-america-china-73906>
- Time, 2021.2.4, “The U.S. and China Are Battling for Influence in Latin America, and the Pandemic Has Raised the Stakes,” 2021.2.4,
<https://time.com/5936037/us-china-latin-america-influence/>
- USC US-China Institute(2020), “Investing In Latin America,”
<https://china.usc.edu/investing-latin-america>
- Urdinez, Francisco(2017), “Las relaciones triangulares: Sobre cómo la hegemonía de Estados Unidos ha condicionado la asertividad china en América Latina”,
Revista de REDCAEM, No. 1, noviembre, pp. 1-27.
- Yin Qian(2019), “An Overview of Chinese Foreign Aid: a Rising Player in Need of Improvement”, *China Development Brief*,
<https://chinadevelopmentbrief.org/reports/an-overview-of-chinese-foreign-aid-a-rising-player-with-much-need-for-improvement/>

Article Received: 2023. 02. 28

Revised: 2023. 04. 05

Accepted: 2023. 04. 18

Can the Law Pull the Custom? –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Hyojin Park*

Chong-Sup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an the Law Pull the Custom? – A Gender Case Study on Rwanda and Nicaragua: Rwanda and Nicaragua are well-known for their high levels of gender equality despite being developing authoritarian regim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 gender equality is measured using official norms such as institution and law. However, when considering unofficial social norms such as traditional customs, cultural practices, and violence against women, women's everyday lives are not as good as the official norms suggest. In the SIGI Index, which includes attitudes and practices as indicators, these two countries rank much lower (160th and 128th respectively) than they do in the Global Gender Gap Index, which gives high weight to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the share of women in parliamen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on social change, by analyzing the cases of Rwanda and Nicaragu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areas of women's rights, land ownership, and domestic violence to identify the extent to which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influences the everyday lives of women in these countrie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law and custom that promotes change while reducing conflicts. This requires a moderate law that aligns with customs or surpasses customs by a moderate margin. Moreover, the presence of enforcement mechanisms is crucial in effecting change from customary practices to new laws. In this regard,

* Hyojin Park is a Masters student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flutesther@snu.ac.kr)

** Chong-Sup Kim is a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skim@snu.ac.kr)

active women's movements can serve to exert pressure for effective enforcement, which eventually can bridg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Key words: Gender Equality, Norms, Culture, Law, Rwanda, Nicaragua, 양성평등, 규범, 문화, 법, 르완다, 니카라과

INTRODUCTION

When considering issues related to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democratic countries tend to be associated more closely with these concepts than authoritarian regimes. In other words, the more democratic a country is, the more likely it is to have a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The 2021 Gender Gap Index supports this trend, as 9 out of the top 10 ranked countries are considered democratic according to the Freedom House Index.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to this generalization. Rwanda and Nicaragua serve as examples. Both countries are considered developing and authoritarian regime countries, with GDP per capita lower than the regional average. However, according to the Global Gender Gap Index, Rwanda ranks 7th and Nicaragua 12th. This suggests that despite be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se countries have achieved a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in terms of official norms, as reflected in the Global Gender Gap Index.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gender representation in politics,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reports that as of March 2023, Rwanda and Nicaragua rank first and third, in terms of the percentage of women in parliament. Rwanda has 61.3% women in parliament, while Nicaragua has 51.7% indicating strong women representation in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Data from the Women, Business and the Law reveals that Rwanda and Nicaragua have high scores of 83.8 and 86.3 out of 100 respectively, indicating a favorable legal status for women in both countries. However, this index does not consider unofficial

social norms such as custom, cultural practices, and attitudes.

To analyze the custom embedded in a country, the SIGI Index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can be used. According to this index, Rwanda ranks 160th and Nicaragua 128th, which is much lower than their respective rankings on the Global Gender Gap Index. This highlights the differences between official norms, as the law, and unofficial norms, as the custom, and the complexity of assessing gender equality in a socie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on social change, by analyzing the cases of Rwanda and Nicaragu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areas of women's rights, land ownership, and domestic violence to identify the extent to which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influences the everyday lives of women in these countr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o facilitate the convergence of custom and law aimed at promoting gender equality, a moderate margin should exist between custom and law.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crucial role of enforcement mechanisms, such as exerting pressure through women's movements, in facilitating this convergence.

THEORETICAL FRAMEWORK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official norms (the law) tend to progress faster towards gender equality than unofficial norms (custom or tradition), and the public is not willing to abide by these new set of laws, especially if the gap between the two is very large. André and Platteau (1998) argue that this is because new laws "run counter to" deeply embedded customary principles, which creates resistance and reluctance to change, and several studies support this pattern with specific examples from countries. Ntampaka (2004) wrote about the tradition of marriage payments in the Ivory Coast, Gabon,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India, and showed how people continue to follow the custom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a law prohibiting it. Similarly, according to Coulibaly (2005), Nambo (2005), and

Sacco (2008), Senegal has a legal prohibition on polygamous marriages, which men refuse to abide by.

An exemplary case in point regarding non-compliance with new laws is domestic violence. Despite the legal prohibition of domestic violence in her country, a woman may choose to remain silent about the abuse she experiences due to fear of potential consequences, and adhere to customary norms. This can result in ongoing violence, physical and emotional suffering, and even passing on the trauma to her children. The advantage of staying silent though, is that she can maintain her family and stay within her community as a woman.

If a woman decides to appeal to the newly established law, several outcomes are possible. The best-case scenario would be that the law protects her from the violence, allowing her to live a better life. In this situation, the abusive husband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separation from the family or education.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In many instances, even if a woman speaks up, the authorities may fail to enforce the law. In this situation, the woman may not only face the abuser but also increased harassment from her community.

Then what could be a solution to this situation? Continuing the discussion on reasons for noncompliance with the law, Aldashev (2012) emphasizes the necessary proximity between the law and custom for change to occur. Aldashev argues that modern law can act as a “magnet” to pull the custom in a favorable direction for marginalized groups under certain conditions – a certain proximity. If we apply this argument to the case of domestic violence, the situation could be seen as the following:

If the disparity between the law and custom of domestic violence is not significant, people can act according to the custom without conflict – continue domestic violence. Also, if the law is too far ahead of the custom, it may not be able to change them, or the change may not occur rapidly due to the reasons mentioned above. The public has not reached a consensus on the radical law, leading to noncompliance. The solution is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law and custom, promoting change and reducing conflicts. The law that is efficient in changing the custom lies between the point where the law is the same as the custom and the point where the law is too progressive to make people abide by it. In other words, a 'moderate' law can be more effective than an extreme law for changing custom.

Another important factor in changing the custom is suggested by Knight (1992). He argues that for custom to change, there must be a strong enough enforcement mechanism to move a society from its original equilibrium (i.e., the custom) to the new equilibrium (i.e., the law). In other words, a mutually agreed upon law by the public will only be accepted if there is a mechanism in place to enforce it (Pistor and Wellons, 1999; Pistor et al., 2003).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its enforcement power when creating the law. If enforcement is weak and the law is too extreme, customs will not change. Hence, it is often better to gradually modify the law by observing the convergence of customs with the law, rather than making the law too extreme. Not only is the government power important for enforcement, but active women's movements are critical in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law and the customs that hinder social change as it can exert enough pressure for stronger enforcement.

In conclusi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highlights the challenges in implementing new laws that promote gender equality in the face of deeply embedded customary norm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official norms (i.e., the law) tend to progress faster than unofficial norms (i.e., the custom), leading to resistance and reluctance to change. The example of domestic violence illustrates how noncompliance with the law can perpetuate violence and suffering, even when the law is in place.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law and custom that promotes change while reducing conflicts. This requires a moderate law that aligns with customs or surpasses customs by a moderate margin. Additionally, enforcement mechanisms must be in a place to move society from its original equilibrium (i.e., the custom) to the new equilibrium (i.e., the law), and

active women's movements can serve as a pressure for effective enforcement,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According to Alcântara (2010),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 made in the parliament, the engagement by women's organizations in building the capacity of women to act effectively in politics and in society is needed.

HISTORICAL BACKGROUND

RWANDA

Rwanda is composed of an ethnic majority of Hutus (85%) and minority groups including Tutsis (14%). The Tutsis were historically in pow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fter the country's independence in 1962 due to their perceived European-like appearance by Belgian colonizers. This led to tensions and a coup d'état by the Hutus demanding the Tutsis relinquish power, resulting in many Tutsis fleeing to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after years of civil war, both sides agreed to the Arusha Peace Treaty in 1993 (Reyntjens 1996). The conflict reignited after the Hutu president's plane was attacked in 1994, leading to a genocide against the Tutsi minority resulting in over a million deaths in just 10 days. The state responded by granting women equal rights as men, inclu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heritance, due to the disproportionate number of men killed in combat (Izabiiliza 2005). However, daily life for Rwandan women has not greatly improved, partly due to the gap between new laws and cultural norms, as well as a lack of education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leading to a need for women's empowerment and education (Berry 2015).

NICARAGUA

Nicaragua was ruled by the Somoza dictatorship from 1936 to 1979, which saw women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limited ownership rights, and

political and economic exclusion. The Sandinista Revolution, however, marked a significant turning point for women's rights, as they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revolution and were recognized as an essential part of the political party.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embership were accepted,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to protect women's rights. Despite continuous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traditional views and attitudes towards women often disregard the law, leading to challenges such as lower wages, non-regular work, and domestic violence. Nevertheless, Nicaragua ranks 12th on the Global Gap Index 2021, with women occupying 51.7% of parliamentary seats and mandatory equal working conditions for both genders in companies.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economic activities is increasing, with numerous successful businesswomen and entrepreneurs, along with organizations like La Asociacion de Trabajadores del Campo empowering women in rural areas (Almeida and Luciak 2003).

CONFLICT BETWEEN LAW AND CUSTOM IN CONTEMPORARY ISSUES

The high legal rights of women in Rwanda and Nicaragua can be traced back to their historical backgrounds. In Rwanda,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reconstruction after the civil war, as men were outnumbered. In Nicaragua, women played a pivotal role during the Sandinista Revolution, and their legal rights hav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n. Despite these legal advancements, women's everyday reality still falls short of their legal rights. This section examines three social sectors that highlight this discrepancy.

The first section discusses the importance of an enforcement mechanism in ensuring that women's legal rights are upheld. As demonstrated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 enforcement mechanism is crucial to bridge the gap between law and custom. Women's rights movements serve as an enforcement mechanism and will be explored in this section as a solution

to enhancing women's rights both in law and custom.

The second section examines land ownership, a critical social sector for both countries in recent years. In Rwanda, where the farming economy is significant, land ownership is directly linked to women's economic rights. In Nicaragua, where land is valuable, ownership also has a direct impact on women's economic well-being.

Finally, the third section focuses on domestic violence, which continues to be a pervasive problem in both countries. As demonstrated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domestic violence exemplifies the largest discrepancy between the law and custom. This section will analyze this social sector and highlight the ongoing challenges women face in accessing justice and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WOMEN'S RIGHTS

As previously discussed throughout the paper, while women's rights are generally respected in legal frameworks, the disparity between law and cultural norms continues to impede gender equality. Nonetheless, as stated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women's rights movemen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social change and advancing gender equality.

In Rwanda, despite the existence of laws to protect women's rights, there has been a lack of women's rights movements to enforce these laws. The initial establishment of the laws for women's rights in Rwanda was a top-down decision made by the country's leadership, without active social movement from the public, as a response to the lack of men for social reconstruction after the genocide (Burnet, 2011).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continuation of women's rights movements, which has hindered the progress of women's rights in the country.

One explanation for the lack of women's movements in Rwanda is that women were primarily occupied with rebuilding their own households after the genocide. Women had to prioritize increasing their household welfare, such as sending children to school, taking in children from other families

where both parents had deceased, feeding children, and working for more income, which left little time and resources for social rights (Burnett, 2011). As a result, social movements were not considered a necessity at the time for women in Rwanda. The lack of women-led social movements or women-led businesses and associations in Rwanda today can be traced back to this historical context of post-genocide reconstruc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women's rights movements in enhancing women's rights cannot be overlooked. In other countries, women's rights movement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pushing for gender equality and enforcing laws that protect women's rights. This would be the case of Nicaragua.

In Nicaragua, women's rights movements, such as AMLAE and ATC,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promoting and protecting women's rights. The Nicaraguan government established laws to promote gender equality, but the strong enforcement of these laws did not occur until the FSLN came back into office in 2007. The government then began to enforce existing laws and establish new ones to improve women's access to education, safe working conditions, and maternal health care. Despite these efforts, gender inequality still persists, particularly among rural and lower-income women.

To address this issue, women's associations, such as the *Articulacion Feminista de Nicaragua*, have emerged to provide education on women's rights, physical and mental support, and promote social movements. These associations are led by women and women-led institutions and are gradually moving Nicaraguan culture closer to the law. As evidenced by data from Tables 1 and 2, the situation for women in Nicaragua is better than in Rwanda, with fewer women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fewer women justifying domestic violence, and more women have access to land.

Overall, the case of Nicaragua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women's movement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and enhancing women's rights. These movements can act as a driving force for cultural change, help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law and custom and leading to a more equitable

society.

In spite of being authoritarian countries, Rwanda and Nicaragua have gender-equal laws. However, the level of respect for women's rights in their everyday lives differs, and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strength of women's movements in each country. In Rwanda, the leg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without much social movement involvement, while in Nicaragua, women actively participated in gaining their right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women-led institutions and movements to protect and advocate for their rights. As a result, Nicaragua's customs are shifting towards gender equality, as evidenced by decreasing incidents of domestic violence and increasing women's land ownership (Takeo and Rice, 2021). This cultural shift suggests a closer alignment between the law and custom, which facilitates law enforcement, as demonstrated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Conversely, gender equality remains elusive in the everyday lives of women in Rwanda, where few social movements are advocating for it, making it harder for women in Rwanda to exercise their rights (Berry, 2015).

LAND OWNERSHIP

The most evident area where the disparity between law and custom is apparent is in the domain of land ownership, which is a significant source of income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both Rwanda and Nicaragua. In these countries, men are conventionally regarded as landowners, while women are responsible for farming the land. However, this tradition has undergone some modifications in recent times. Following the genocide in Rwanda, the state provided land ownership rights to female relatives of men who died, such as wives, sisters, and mothers, to resolve the issue of uncertain land ownership. However, in the reality, the enforcement was very weak. Nevertheless, there were no women-led movements or institutions to safeguard this right. In Nicaragua, during the Sandinista Revolution, women who cultivated the land were granted the right to register it under their names by the FSLN. Subsequently, groups such as ATC continued to advocate for women's rights

to land ownership. Although women have been able to register as owners since this period, the law is not all-inclusive, as land ownership for women who are widows, single, or in non-traditional marital status is not recognized (Djurfeldt 2020). This implies that although land ownership is legally established for women, it is not yet completely equal for them as it is for men.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gender roles is a significant hindrance to gender equality in land ownership. In most households, land is viewed as the property of men and registered under a man's name. Even when a man is married and has a wife, he is more likely to share or transfer land ownership to another male relative, such as a brother-in-law, instead of his wife (Djurfeldt 2020). This practice persists despite the progress made towards gender-equal land ownership. Thus,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improvements, traditional attitudes towards men as the primary landowners continue to impede full inclusivity in land ownership. Conflict within families due to traditional customs that nearly never allow women to have actual ownership still exists, which also hinders women's actual ownership of land (Ravnborg et al. 2016).

When comparing the two countries, Nicaragua is found to be more gender-equal than Rwanda based on 2019 data from the OECD's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The SIGI measures gender discrimination in social institutions across 180 countries. According to the data, Nicaragua has a score of 0 in inheritance law, whereas Rwanda has a score of 0.25, with a closer score to 0 indicating greater equality. Both countries have a score of 0.25 in laws related to access to land assets, demonstrating better protection of women's rights compared to countries at a similar level of development. Nicaragua is also noted for having a high proportion of women who own land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nations, despite similar legal protection for women's land ownership.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stronger enforcement of the law in Nicaragua, which is the result of strong women's movement. However, in Rwanda, even though

the law protects women's rights to land ownership, the actual ownership may not be as high. According to Bayisenge et al. (2014), there is a high degree of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owner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Rwanda, which is due to traditional cultural norms and patriarchal attitudes that challenge women's land rights (Bayisenge et al. 2014).

Table 1. Women's Rights related to land ownership

	Inheritance Law1)	Secure access to land assets	
		Law1)	Practice2)
Nicaragua	0	0.25	23.3
Rwanda	0.25	0.25	NA
Indonesia	1	0.5	8.8
El Salvador	0.25	0.25	11.6
India	0.5	0.25	12.8
Malaysia	0.5	0.5	18.0
Tanzania	1	0.25	19.7
Zambia	0.5	0.25	19.2
Ecuador	0.25	0.25	25.4

Note: 1) 0: equal rights; 1: unequal rights

2) share of women among house owners

Source: SIGI 2019 (OECD)

DOMESTIC VIOLENCE

Another area that highlights a disconnect between law and cultural norms is domestic violence. In Rwanda, there has been progress in enacting laws and policies that promote women's representation in parliament and all levels of institutions, as well as laws for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and implementing gender balance policie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domestic violence rates have not decreased. In fact, there are reports suggesting that domestic violence increased after the enactment of laws promoting women's soci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Habarugira, 2023). According to a survey, 61% of respondents stated that

“domestic violence happens because most men were not able to cope with the change in women’s empowerment policies” (Habarugira, 2023, p.55). This study suggests that with enhanced women’s rights, women are put in more danger than before.

A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to the perpetuation of domestic violence is the resistance of traditional customs and beliefs to new laws.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hibiting domestic violence in Rwanda, traditional practices and beliefs remain unchanged, and one key reason for this is the prevalence of customs. In 2008, the Rwandan government established specific law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GBV).¹ However, the survey results from Habarugira’s (2023) study indicate that 50% of the surveyed population agreed that this law against violence was not effective in protecting women from abuse by their husbands. One contributing factor to the persistence of domestic violence is the prevalence of traditional gender roles that reinforce male dominance over women. Although law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tect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in Rwanda, the persistence of these traditional practices and beliefs has hindered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This is due to the large gap between the existing laws and deeply entrenched cultural norms. As a result, the reality for women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despite the legal advancements.

Women in Nicaragua also face domestic violence. However, with the several women-led institutions and social movements that provide education on women’s rights and domestic violence, the reality is better than in Rwanda. Around 22% of women experience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during their lifetime. Despite the high percentage, in comparison to countries in similar situations, such as Rwanda, Tanzania, and Zambia,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ountry is in better position of domestic violence. Hence, Nicaragua has strong law (0.25) and the reality of women is improving when

¹ Law No 59.2008 (Criminalize Marital Rape): This Law introduces a range of new provisions with regard to gender-based violence. It criminalizes marital rape, stating that “it is forbidden or make sex with one’s spouse without their consent.” Being just one set of law, this new establishment enforced stronger prohibition of gender-based violence.

it comes to domestic violence.

Empowering women is commonly suggest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in both countries (Ntagnaira et al. 2009). In Rwanda, women's empowerment must happen through enhanced women-led movements and institutions or associations that educate the public about women's rights and domestic violence, with the goal of decreasing the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through the women right's movements acting as enforcement mechanisms. To enhance women's empowerment in Nicaragua,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obust community centers or institutions that women can seek assistance from after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This women empowerment fundamentally aims to close the gap between the culture and law for gender equality in their everyday lives.

In conclusion, as shown in Table 2, Nicaragua has stronger laws to protect women from domestic violence than Rwanda and a lower percentage of women accepting violence against them, indicating that the moderate margin of law and custom in Nicaragua is allowing it to advance in gender equality more than Rwanda.

Table 2. Indicat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Law ¹⁾	Attitudes ²⁾	Practice ³⁾
Nicaragua	0.25	13.7	22.5
Rwanda	0.5	41.4	34.4
Indonesia	0.75	34.5	18.3
El Salvador	0.5	7.7	26.3
India	0.5	22.1	28.7
Viet Nam	0.75	28.2	34.4
Tanzania	0.75	58.0	41.7
Zambia	0.5	46.9	42.7
Ecuador	0.5	25.2	37.5

Note: 1) Legal framework protects women from violence: 0: strong; 1: weak

2) Percentage of women who consider a husband to be justified in beating his wife in certain circumstances

3) Percentage of women who ever suffered intimate partner violence

Source: SIGI 2019 (OECD)

CONCLUSION

Rwanda and Nicaragua are well-known for their high levels of gender equality despite being developing authoritarian regime countries, especially when gender equality is measured using official norms such as institutions and laws. However, when considering unofficial social norms such as traditional customs, cultural practices, and violence against women,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these two countries is much lower. In the SIGI Index, which includes attitudes and practices as indicators, these two countries rank much lower than they do in the Global Gender Gap Index, which gives high weight to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the share of women in parliament.

This suggests that, while these countries may appear to be gender-sensitive and equal on the legal ground, the everyday lives of women have not improved as much as the laws suggest. The legal frameworks in Rwanda and Nicaragua provide women with opportunities to exercise their rights; however, cultural barriers continue to hinder their ability to do so in their daily lives. Despite the existence of gender-equal laws, women in both countries still face domestic violence, limited access to assets such as land, and unequal treatment within their households. This gap between the law and culture remains a significant obstacle to gender equality.

Despite the persistence of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law and custom in both countries, Nicaragua seems to be in a better position than Rwanda. This is because, as shown in the three social sectors, women-led movements have acted as strong enforcement mechanisms in driving custom change towards gender equality. Furthermore, the margin between the law and custom is becoming more moderate in Nicaragua, making the prospect of changing custom more feasible. Considering these factors, we can suggest that the most efficient policy to improve gender equality does not lie with extreme policies which are very distant from the custom and reality, but with policies that are between the reality and the ideal state in the future.

REFERENCES

- Algovia, Enrique Bonilla, Esther Rivas Rivero, and Rosa Martin Galvan (2018), "Violencia De Género En Nicaragua : Percepciones De Las Profesionales De Los Centros De Atención a Mujeres Víctimas.," *Investigación y género. Reflexiones desde la investigación para avanzar en igualdad : VII Congreso Universitario Internacional Investigación y Género*.
- Aldântara, A. A.(2010), "Quotas as a Path to Parity: Challenges to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IDS Bulletin*, Vol. 41, No. 5, pp. 116-120.
- Aldashev, Caara, et al(2012), "Using the Law to change the custom,"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7, pp. 182-200.
- Almeida, Paul D., and Luciak, Ilja A.(2003), "After the Revolution: Gender and Democracy in El Salvador, Nicaragua, and Guatemala, " *Contemporary Sociology*, Vol. 32, No. 2, pp. 214 – 215.
- Andersson Djurfeldt, Agnes(2020), "Gendered Land Rights, Legal Reform and Social Norms in the Context of Land Fragmentatio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Kenya, Rwanda and Uganda, " *Land Use Policy*, Vol. 90 <https://doi.org/10.1016/j.landusepol.2019.104305>.
- André, C., and Platteau, J.-P.(1998), Land Relations under Unbearable Stress: Rwanda Caught in the Malthusian Trap,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24, No. 1, pp.1-47.
- Bayisenge, J., Höjer, S., and Espling, M. (2014), "Women's land rights in the context of the land tenure reform in Rwanda – the experiences of policy implementers," *Journal of Eastern African Studies*, Vol. 9 No. 1, pp. 74–90.
- Berry, M. E. (2015a), "From violence to mobilization: Women, war, and threat in Rwanda,"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Vol. 20, No. 2, pp.135-156.
- Berry, M. E. (2015b), "When 'Bright Futures' Fade: Paradoxes of Women's Empowerment in Rwanda,"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41, No. 1, pp. 1-27.
- Blandón, María Teresa. (2018), "Relación Del Movimiento De Mujeres y Feminista Con El Movimiento y Gobierno Sandinistas De Nicaragua Durante Los Últimos 40 Años." *Monograma. Revista Iberoamericana de Cultura y Pensamiento*, pp. 97-128.
- Burnet, J. E. (2011), "Women have found respect: Gender quotas, symbolic representation, and female empowerment in Rwanda." *Politics and Gender*,

Vol. 7, No. 3, pp. 303–334.

- Coulibaly, M. (2005), *Le Droit et Ses Pratiques au Sénégal*. In: Luyu, C. (ed) *A la Recherche du Droit Africain*, du XXIème siècle. Paris: Connaissances et Savoir.
- Cullen, C. (2020), “Method matters: Underreporting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Nigeria and Rwand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 Dutt, A., & Grabe, S. (2019), “Understanding processes of transformative change: A qualitative inquiry into empowering sources and outcomes identified by women in rural Nicaragua,” *Sex Roles*, Vol. 81 No. 7-8, pp. 487–504.
- Freedom House Index. <https://freedomhouse.org>
-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gender-gap-report-2021/>
- Goldfaden, Marissa B. (2010), “Triumph over Tragedy: The Women's Movement of Rwanda Finds Success Post-Genocide,” *Inquires Journal/Student Pulse*, Vol. 2, no. 1, pp.1-2.
- Habarugira (2023), “Examining women’s empowerment and the increase in Domestic Violence: A Case study of Rwanda.”
- Inter-Parliamentary Union,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3&year=2023>.
- Knight, J. (1992), *Institutions and Social Confli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mbo, J., (2005), “Le Droit et Ses Pratiques au Gabon,” In: Kuyu, C (Ed.), *A la Recherche du Droit Africain* de XXIème siècle. Paris: Connaissances et Savoir.
- Ntampaka, C., (2004), *Introduction aux Systèmes Juridiques Africains*, Presses, Namur: Universtaires de Namur.
- Ntaganira, Joseph, Adamson Muula, Seter Siziya, Carleen Stoskopf, and Emmanuel Rudatsikira.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Pregnant Rural Women in Rwanda” *Rural and Remote Health*, Vol.9, No.3, 1-7.
- OECD (2021),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https://www.oecd.org/stories/gender/social-norms-and-gender-discrimination/sigi>.
- Pistor, K. and Wellons, P.(1999), *The Role of Law and Legal Institutions in Asian Economic Development, 1960-1995*,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Pistor, K., Keinan, Y., Kleinheisterkamp, J. and West, M.(2003), “Evolution of Corporate Law and the Transplant Effect: Lessons from Six Countries,”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No.18, pp.389-112.

- Ravnborg, H., Spichiger, R., Broegaard, R. and Pedersen, R.(2016), “Land Governance,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Past Achievements and Remaining Challenges, ”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28, No. 3, pp. 412-427.
- REYNTJENS, F.(1996), “Rwanda: Genocide and beyond,”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9, No. 3, pp. 240–251.
- Rivas, Eer and Bonilla, Enrique(2020), “Salud mental y miedo a la separación en mujeres víctimasde violencia de pareja,” *Revista Iberoamericana De Psicología y Salud*, Vol. 11, No.1, p. 54.
- Takeo, E. (2021, November 4), . Retrieved September 9, 2022, from Peoples Dispatch 2021.11.4, “*Women’s struggle in Nicaragua: From Liberation Fighters to building an alternative society,*”
<https://peoplesdispatch.org/2021/11/04/womens-struggle-in-nicaragua-from-liberation-fighters-to-building-an-alternative-society/>
- World 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Article Received: 2023. 03. 02

Revised: 2023. 04. 06

Accepted: 2023. 04. 18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본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의 『깊은 강들』

우석균*

단독/서울대학교

ABSTRACT

***Los ríos profundos* by José María Arguedas from the Decolonial Perspective:** This paper deals with *Los ríos profundos* (1958) by José María Arguedas, Peruvian writer and anthropologist. This work is an autobiographical novel and a kind of *Bildungsroman* whose protagonist is Ernesto, a *criollo* boy. The main stage is Abancay, where the social structure of discrimination is solid in all spaces such as the school, the city and the *hacienda*, which is the origin of Ernesto's acute discord with the world. That social structure is revealed more clearly through *los colonos*, practically enslaved Indians. My opinion for a long time has been that the final part of the work is too utopian, in which, when typhus breaks out, *los colonos* of the *hacienda* go to the city without fears asking for mass despite the control of the soldiers. However, considering the reality of the deep Andes of that time, I changed it. Indeed, these *colonos* did not dare to speak or protest like the wretched of the earth despite so many inexorable exploitations. But with the typhus, they became those who know how to speak and act.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Nelson Maldonado-Torres, one of the important scholars of decolonialism, it can be said that the novel ends with the decolonial turn of *los colonos*, overcoming their condition of the coloniality of being.

Key words: José María Arguedas, *Los ríos profundos*, Decolonialism, Coloniality of Being, Decolonial Turn /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 깊은 강들, 탈식민주의, 존재의 식민성, 탈식민적 전환

* Suk-Kyun Woo is a associate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wsk65@snu.ac.kr)

들어가면서

『깊은 강들 *Los ríos profundos*』(1958)은 페루 소설가 호세 마리아 아르케다스(José María Arguedas)의 대표작이자 최고의 선주민주의 문학 작품,¹ 나아가 페루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평가되는 소설이다. 개인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 소설 중 손에 꼽을 만큼 집착한 작품이다. 1990년의 석사논문 연구대상 텍스트라는 애착이 커서가 아니라 논문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다. 일단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연구하려다가 아르케다스로 급선회한 이유조차 스스로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당시 페루에서 바르가스 요사는 이미 미래의 노벨문학상 작가라는 칭송이 있었고, 결국 2010년 이상을 수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케다스를 택한 이유는 그가 바르가스 요사보다 더 페루 작가답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르가스 요사에서 손을 떼 이유는 나름대로 명확했다. 대신 출마를 결심하면서 신자유주의

1 리카르도 곤살레스 비힐은 콘차 멜렌데스, 아이다 코메타 만소니, 후안 러브릭, 특히 토마스 G. 에스카하디오의 논의를 참조하여 선주민주의(indigenismo)를 인디오주의(indianismo), 정통 선주민주의(indigenismo ortodoxo), 신선주민주의(neo-indigenismo) 세 단계로 구분한다. 인디오주의 단계는 외부 시선으로 인디오를 보았던 단계로 몽테뉴, 볼테르, 루소, 마르몽텔 같은 프랑스인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 페루 문인 중에서는 나르시소 아레스테기, 클로린다 마토 데 투르네르, 아브라함 발델로마르, 벤투라 가르시아 칼데론 등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정통 선주민주의 단계는 인디오들에 대한 낭만적 이상화의 극복 시도, 사실주의 기법에 입각한 지역주의 문학(literatura regionalista),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와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와 궤를 같이 하는 사회적 비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에스카하디오는 이 단계 문학이 엔리케 로페스 알부하르에서 시작하여 시로 알레그리아에서 절정을 맞이했다고 보지만, 곤살레스 비힐은 알레그리아를 아르케다스, 엘레오도로 바르가스 비쿠냐,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사발레타와 함께 그다음 단계인 신선주민주의 문인으로 분류한다. 특히 아르케다스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곤살레스 비힐에 따르면 신선주민주의 문학은 마술적 사실주의와의 친연성, 서정성, 국가 차원에서 인디오 문제 조망 촉구, 다양한 현대문학 기법 수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González Vigil 1995, 44-56). 카르멘 알레마니 바이는 한편으로는 인디오주의와 선주민주의의 구분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인디오를 지시하는 문학은 대체로 증언서사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원을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베르나르디노 데 사야군, 펠리페 외망 포마 데 아얄라, 잉카 가르실라스 데 라 베가라고 보는 것도 인디오 착취에 대한 이들의 고발이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Aleman Bay 2019, 151-152). 선주민주의와 신선주민주의의 구분 필요성도 아예 배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신선주민주의는 “정복 때부터 존재한 도도한 선주민주의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에 굳이 양자의 구분이 필요 없다고 본다는 안토니오 로렌테를 인용하기도 한다(Aleman Bay 2019, 157). 그리고 이 견해에 동조하는 듯, 자신의 글의 부제에서는 ‘인디오주의와 선주민주의’로만 적고 있다. 이 글에서도 아르케다스의 새로운 선주민주의가 이전과 다른 점을 특별히 언급할 때를 제외하면 굳이 선주민주의와 신선주민주의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에 다시 활성화된 선주민주의 흐름도 있고 해서 신선주민주의라는 범주를 계속 고집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이다.

행보를 걸은 점도 마땅치 않았고, 문학적으로는 그가 페루 작가가 아니라 리마 작가처럼 보였다. 리마 이외의 지역들, 특히 안데스를 다루는 작품들에 공감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² 그래서 더 페루 작가답다는 인상을 준 아르케다스를 택한 것이다. ‘인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이유는 안데스에 대한 지식, 페루에서 안데스의 위치(location) 등에 대한 성찰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쓴 논문이었으니 과연 필자가 『깊은 강들』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또 제대로 논문을 쓴 것인지 별로 자신이 없었다.

6년 후 역사학자 알베르토 플로레스 갈린도의 『잉카 군주를 찾아서: 안데스의 정체성과 유토피아』(1986)를 읽으면서 드디어 답이 나왔다. 필자의 『깊은 강들』에 대한 이해도, 또 논문의 분석 수준도 수박 겉핥기였다는 결론이었다. 플로레스 갈린도의 저서가 이 소설에 할애한 지면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다. 그저 1장의 몇 장면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나 통찰력 있고 울림 있는 역사의식이 담겨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깊은 강들』을 다시 다루어보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 하지만 몇 년 뒤 플로레스 갈린도의 해석을 계간지에 짧게 소개했을 뿐(Woo 2003), 오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서였다. 『깊은 강들』은 어린 시절 아르케다스의 자화상이 담긴 자전적 소설로 소년 에르네스토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따라서 소년의 자아가 세계와 불화를 빚는 원인, 극복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최종 메시지 부분이 약하다는 석사논문 집필 당시부터의 인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소설 마지막 장인 11장이 비판적 역사의식

2 바르가스 요사의 1960년대 작품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전히 매력을 느낀다. 『도시와 개들 *La ciudad y los perros*』(1963)이나 『카테드랄 주점에서의 대화 *Conversación en La Catedral*』(1969) 등이 그렇다. 그러나 『녹색의 집 *La casa verde*』(1966)의 경우는 아마존을 다루는 부분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1970년대부터의 작품들, 특히 수도 리마나 해안지대가 아닌 페루의 다른 지역들을 다룬 『판탈레온과 특별 봉사대 *Pantaleón y las visitadoras*』(1973), 『마이타 이야기 *Historia de Mayta*』(1984), 『말하는 자 *El hablador*』(1987) 등은 서구 중심적 혹은 리마 중심적인 관점의 작품들일 뿐이다.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세상 종말 전쟁 *La guerra del fin del mundo*』(1981)은 바르가스 요사가 자신의 이념적 전환에 대해 작품을 통해 마음먹고 정당화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여 나름대로의 성찰의 깊이가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르미엔토의 ‘문명과 야만’의 교묘한 부활로 느껴질 뿐이다.

이 담긴 1장의 강렬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보니 형식적으로도 용두사미라고 여겨졌다. 11장은 대농장(hacienda)에 노예처럼 예속된 인디오 콜로노(colono)들의 용기 있는 봉기와 행진을 보고 비로소 자아와 세계의 불화를 극복하는 에르네스토의 최종적 성장이 담겨 있는데, 그들의 행동 이유는 역병이 돌자 미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1965년의 페루작가대회에서 아르게다스는 이 결말에 대해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마술적 층위의 이유 때문에도 봉기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삶과 같은 더 직접적인 사안을 위해 투쟁할 때면 어찌 봉기하지 않겠는가”(VV, AA. 1986, 239)라고 설명하였다. 사회변혁 전망을 구체적이고 확고하게 담지 못한 마술적 층위의 결말이라는 점이 영 찝찝했다. 좋게 말하면 유토피아적 전망이 담긴 결말이지만, 어찌 보면 비현실적인 결말이다. 그래서 아르게다스의 작품 세계 전체를 “아름다운 거짓말”(Vargas Llosa 2004, 84)일 뿐이라는 바르가스 요사의 폄하가 마땅치 않으면서도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또 미사 요구 때문에 봉기한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힘든 설정으로 여겨졌다. 지배자들이 들어온 종교 때문에 봉기한다니 소위 영혼의 정복이라는 식민 유산을 인디오들이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결말 부분에 대한 해답도 찾은 것 같다. 우선 그동안 쌓인 안데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 덕분에 1920년대의 깊은 안데스를 다룬 소설이 유토피아적 전망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거짓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또 탈식민주의(decolonialismo) 이론을 접하면서 존재의 식민성(la colonialidad del ser)에 억압된 콜로노들이 탈식민적 전환(giro decolonial)을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출발점인지도 인식하게 되었다.

깊은 쿠스코에서의 자아와 세계의 불화

‘깊은 강들’이란 제목은 미국의 ‘깊은 남부’(Deep South), ‘깊은 멕시코’(México profundo) 등을 연상시킨다. 특정 지역의 소외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개념으로, 페루에서도 아르게다스 이전에 존재했다. 저명한 역사학자 호르헤 바사드레(Jorge Basadre)가 1947년 ‘공식적 페루’(Perú oficial)와 ‘깊은 페루’(Perú profundo)를 구분한 바 있다(Acosta 2010). 물론 바사드레의

깊은 페루는 안데스뿐만 아니라 지방 전체를 지시하고, 이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단일체로서의 페루, 즉 근대적 국민국가로서의 페루를 염원한다는 점에서(Rowe 2008, 181) ‘깊은 강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는 아르케다스와는 차이가 난다. 아르케다스는 당시 그의 신념에 따르면 문화횡단적 페루, 오늘날의 용어로는 상호문화적 페루를 지향했다.

아무튼 『깊은 강들』은 이 깊은 페루, 특히 깊은 안데스를 다루고 있고, 주 무대는 아방카이의 예수회 기숙학교이다. 아르케다스가 14-5세 때인 1925-26년에 실제로 기숙생활을 한 곳이다. 아방카이는 쿠스코주와 붙어 있는 아푸리막주의 주도(州都)인데, 오늘날까지도 케추아어 사용 인구가 많은 곳이고, 『깊은 강들』 발간 시점까지도 안데스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의 하나였다. 깊은 안데스의 민낯을 드러내기 적당한 무대였던 것이다.³

하지만 『깊은 강들』은 주인공 소년 에르네스토의 쿠스코 방문으로 시작된다. 전체 11장 중에서 오직 첫 장인 「노인테 El Viejo」만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적절한 선택이었다. 잉카 제국의 수도라는 상징성이 깊은 안데스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 형식의 요구 때문에도 적절한 선택이었다. 성장소설이니만큼 서두에서 자아와 세계의 불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쿠스코의 역사적 애환이 그 불화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쿠스코가 아르케다스가 잘 알고 있는 도시여서 가능한 선택이었다. 쿠스코 출신 부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페루 여러 지역을 부친과 함께 여행하던 시절인 1924년에 열흘 간 이 도시에 머문 적이 있다. 또, 1939년부터 2년 반 정도 인근 소도시 시쿠아니(Sicuani)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민족지학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에르네스토의 쿠스코행은 아버지의 친척 노인 방문에 따른 것이다. 아버지는 이 노인을 증오하고 있어서 달가운 방문은 아니다. 에르네스토도 그

3 1920년대의 선주민주의 문화과의 차별화를 위해 선선주민주의 문화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들은 보통 알레그리아와 아르케다스를 후자 범주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으면서도 아르케다스를 더 높이 평가한다. 계모가 인디오들에게 아르케다스 양육을 맡기면서 그가 스페인어보다 케추아어를 먼저 습득했고, 그들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알레그리아가 북부 안데스를, 아르케다스가 남부 안데스를 주로 다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부 안데스는 남부 안데스에 비해 종교, 언어, 문화 등의 고유 전통을 상대적으로 많이 상실한 지역이다(Larco 1976, 23). 그래서 깊은 안데스를 대변하는 작가로 아르케다스를 꼽는다.

사실을 어렵듯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위대한 도시”(Arguedas 1983, 11)⁴에 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렌다. 그러나 첫인상부터 쿠스코는 위대한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날이 진 후 도착하는데, 그가 아는 몇몇 마을보다 오히려 불빛이 희미해서 “그곳이 쿠스코일리 없었다”(11)라며 현실 부정을 하게 만든다. 이처럼 소설 시작부터 에르네스토의 자아는 세계와 불화를 빚는다. 그래도 소년은 잉카 군주의 궁, 대성당, 중앙광장 등을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위대한 도시를 발견하려고 안간힘 쓴다. 그러나 실망의 연속이라 세계와의 불화가 더 심화된다.

노인네 집에 여장을 풀 뒤 에르네스토는 먼저 혼자서 잉카 제국의 6대 군주인 잉카 로카의 궁을 찾는다. 궁은 좁고 어둡고 오줌 냄새가 나는 골목에 있다. 더구나 취객이 노상 방뇨를 하는 장면도 목격된다.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의 담장을 어루만지다가 문득 그 구불구불한 이음새에서 물결을 연상하고, 생명을 감지하고, 타오르는 불길을 느낀다.⁵

양손으로 돌을 어루만졌다. 바윗덩어리들을 짜 맞춘 구불렁한 선을 따라 손을 눌렀다. 마치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예측 불가능한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적에 잠긴 어두운 골목길에서 담장은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어루만지고 있던 돌 이음새가 내 손바닥에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14).

이러 ‘야와르’(yawar, 피)와 관련된 일련의 연상 작용이 에르네스토를 사로잡는다. 최종적으로는 ‘푹틱 야와르 루미’(puk'tik' yawar rumi, 끓어오르는 피의 돌)라고 외친다. ‘야와르 마유’(yawar mayu, 피의 강)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소설의 결말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잉카 담장의 돌들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기묘했다. 좁은 골목 쪽으

4 앞으로의 작품 인용은 쪽 번호만 적는다.

5 이 담장은 유명한 12각형 돌을 비롯해서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돌들을 틈 하나 없이 정교하게 짜 맞춘 건축술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로는 창이 나 있지 않은 2층 건물들 아래에서 그 돌들이 꿋고 있었다. 문득 애절한 구절을 늘 되풀이하는 케추아 노래들이 떠올랐다. ‘야와르 마유’(피의 강), ‘야와루 우누’(피로 얼룩진 물), ‘폭틱 야와르 코차’(끓어오르는 피의 호수), ‘야와르 웨케’(피눈물) 등의 구절이었다. 그렇다면 ‘야와르 루미’(피의 돌), ‘폭틱 야와르 루미’(끓어오르는 피의 돌)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담장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음새마다 끓어오르고 있었고, 담장 표면도 변화무쌍했다. 마치 담장 높이만큼이나 깊은 여름 강물의 물길 한가운데, 가장 두렵고 세차게 흐르는 바로 그 부분의 강물 표면 같았다. 인디오들은 그렇게 소요하는 강물을 ‘야와르 마유’라고 부른다.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거리는 움직임, 마치 피가 흐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의 춤에서 격렬함이 최고조에 달할 때, 춤꾼들이 싸움을 벌이는 바로 그 순간도 ‘야와르 마유’라고 부른다. -폭틱 야와르 루미!- 나는 담장 앞에서 목청껏 외쳤다(14).

필자에게 이 장면은 『깊은 강들』의 백미이고, 선주민주의 문학의 백미이고, 나아가 페루 문학의 백미이다. 기존 선주민주의 문학이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인디오 세계를 형상화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그와는 다른 역동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와르 마유를 전쟁의 춤과 연결지면서 인디오 전사들의 기상을 부각시키는 점이 압권으로 느껴졌다. 마치 아르케다스가 페루인들에게 깊은 안데스를 근본적으로 재성찰할 것을 촉구하는 듯했다. 필자의 이 평가는 전적으로 페루의 역사학자인 알베르토 플로레스 갈린도의 번뜩이는 해석 덕분에 가능했지만, 이를 소개하는 글에서 위 인용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Woo 2003, 197) 이유는 그 때문이다. 플로레스 갈린도는 뒤늦게 아들을 찾아 골목에 당도한 아버지와 에르네스토의 대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아들은 “돌들이 저마다 말을 해요 [...중략...] 움직이고 있어요”(15)라고 아버지에게 고하는데, 플로레스 갈린도는 이 말을 호세 데 라 리바-아구에로의 『페루 풍경』의 한 대목과 비교한다. 역시 역사학자였던 리바-아구에로가 1912년 쿠스코 여행에서 잉카 시대의 담장을 두고 “퇴락한 기념물들의 장례식의 매혹”(Riva-Agüero 1955, 8)이라고 묘사한 구절이다. 플로레스 갈린도는 아르케다스의 생명의 상상력과 리바-아구에로의 죽음의 상상력을 대비시키면서(Flores Galindo 1994, 282), 보수주의자이고

대표적인 스페인중심주의자(hispanista)였던 리바-아구에로의 시각을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탄핵한 아르케다스와 『깊은 강들』의 역사적 의미를 짚은 것이다.

그런데 시각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돌들이 말을 하고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돌 모양이 불규칙하니까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15) 것뿐이라고 대답한다. 잉카 담장의 생명력에서 위대한 쿠스코를 발견해 낸 아들의 상상력을 이성적 논지의 답변으로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이어지는 대화는 아들을 아예 분노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 잉카 로카 궁 담장을 토대로 하여 지은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아들이 묻자, 아버지는 “귀족 가문”이지만 노인네 같은 구두쇠들이 살고 있다고 답한다.⁶ 아들은 이 현실이 용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잉카(Inca)가 내버려뒀어요?”하고 묻는데, 아버지는 “잉카들(incas)은 죽었어”라며 또다시 이성적인 답을 할 뿐이다(15). 나아가 “노인네가 마음을 어지럽혀서” 혹은 “낮이 빠져서” 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치부한다(15). 즉 아들이 감정에 치우쳐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플로레스 갈린도는 또다시 번뜩이는 해석을 내놓는다. 소문자 잉카는 잉카 시대의 실존 군주들을, 대문자 잉카는 “세계를 조직하는 원칙”(principio organizador del mundo)을 가리킨다는 것이다(Flores Galindo 1994, 283). “세계”는 정복 아래의 질서를 타파할 새로운 세계를, “원칙”은 그 세계의 형이상학적 구심점을 말한다. 플로레스의 책이 17세기 아래의 잉카리 신화를 다루는 책이라서 그 연장선상에 내린 해석이다. 잉카 군주의 참수된 목에서 몸통이 다 자라면 그가 다시 돌아와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의 신화이다. 1950년대 초부터 여러 판본의 잉카리 신화가 채집되었는데, 아르케다스가 바로 초기 채집자 중 한 사람이었다(Arguedas 1987, 39-42). 따라서 그가 굳이 대문자 잉카와 소문자 잉카를 구분해서 쓴 이유를 이 신화와 연결해서 설명한 플로레스 갈린도의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⁷

지금까지의 장면들만 놓고 본다면, 아르케다스가 잉카 시대나 인디오의

6 사각형 돌 대신 갖가지 모양의 돌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짜 맞춘 잉카인들의 건축술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스페인 정복자들도 그 효능을 이해했다. 그래서 잉카인들의 건물 윗부분만 부수고 아랫부분을 토대 삼아 그 위에 스페인식 집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이 대목에서 언급하는 귀족 가문이 당시의 정복자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귀족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당대의 쿠스코 유지들을 가리킨다.

7 잉카리 신화에 대해서는 우석균(Woo 2006, 182-186), 강성식(Kang 2008)을 참조하라.

복권 정도를 시도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아르케다스를 신선주민주의 문인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게 된 이유는 그가 이전 선주민주의 문학의 이국주의와 안데스판 오리엔탈리즘은 물론 일각의 유포 피아적 과거 회귀 경향까지 극복했기 때문이다. 가령, 학자로서 또 교육부장관으로서 아르케다스에게 도움을 주었던 루이스 E. 발카르셀(Luis E. Valcárcel)처럼 “잉카 인종의 우월성을 천명”한다거나, “외래적인 것에 대한 명백한 경멸”을 드러낸다거나, “혼혈을 잡종 교배로 간주해, 여기서 페루의 재앙들이 비롯되었다”고 보는 입장에 반대했다(Aleman Bay 2019, 155). 대신 문화횡단(transculturación)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발전한’ 사회와 ‘낙후된’ 사회가 만날 때 후자 문화가 전자 문화에 동화되는 변화를 겪는다는 서구 중심적 인류학 개념인 문화접변(aculturación)을 비판하는 개념으로 1940년 쿠바의 페르난도 오르티스에 의해 처음 개진되었다(Ortiz 2018). 그리고 문화횡단 개념을 안데스 인류학 연구에 적극 도입한 이가 바로 아르케다스였고, 페루 중부 안데스에 위치한 왕카요(Huancayo)의 만타로 계곡(Valle del Mantaro)에 대한 세 차례 인류학 조사(1949, 1953, 1955)를 통해서였다. 아르케다스의 주 관심사는 깊은 안데스가 근대화 과정에서 외부 문화와 접촉할 때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창조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 역량이 있는가였다.

『깊은 강들』 1장의 경우 아르케다스의 이 시각이 대성당과 그 주변에 대한 서술에 투영되어 있다. 에르네스토도 문화횡단적 도시로서의 위대한 쿠스코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역시 좌절된다. 가령, 대성당 앞의 중앙광장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보고, 에르네스토는 “나무들이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대성당 앞에서는 자랄 수 없었겠죠”(16)라고 아버지에게 말한다. 중앙광장이 잉카의 가장 위대한 군주 파차쿠타이 각종 행사를 거행하고자 만든 장소이니만큼 여기까지는 지배자들의 군림에 대한 비판의식의 반복이다. 하지만 곧이어 그 옆의 예수회 성당을 주목한다. 대성당과 달리 계단을 오를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성당이라서 “위압적이지 않고 즐거움을 주었다”(17)라고 서술한다. 똑같이 정복자들이 만든 성당이지만 위계질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대성당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만 묘사되는 것은 아니다. ‘마리아 앙골라’라고 불리는 대성당의 종소리 장면이 그렇다. 쿠스코에서 가장 큰 종이고, 제작

과정에서 두 번의 실패 끝에 갈색 피부의 여인(morena)이 기부한 막대한 황금 덕분에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문화횡단적 전설이 담겨 있는 종이다.⁸ 에르네스토는 “그 순간에 대지는 황금으로 화했음이 틀림없다. 내가 본 담장, 도시, 교회 앞마당, 건물 입구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황금으로 변했다”(18)라고 말한다. 그 종소리에 맞추어 돈 마이와와 돈 빅토 푸사가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두 사람은 인디오로 어린 시절의 아르케다스를 가족처럼 대해준 실존 인물들이다.

그나마 느끼던 작은 행복감도 다음날 바로 깨진다. 깊은 쿠스코의 억압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존재인 노인네와 조우하면서다. 서두부터 예고된 일이다. 『깊은 강들』은 바로 이 인물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모든 성당과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제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마다 모자를 유난스럽게” 벗는 인물이지만, “산꼭대기에서 으스스한 목소리로 고향을 질러대” 자신의 대농장 소속 인디오들을 겁박하고, 과일이 광에서 썩어나가도 이들에게는 아까워서 주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다(11). 전날 야밤에 쿠스코 순례를 마치면서 에르네스토가 “영원히 행복해지려고 쿠스코에 갈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그는 “적그리스도”인 노인네가 이 도시에 있다는 말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19). 에르네스토는 노인네를 따라 대성당 미사에 참석하는데, 가는 길에 그는 잉카로카 궁의 담장을 아예 “이교도의 혼란스러움, 즉 원시적 사고의 혼란스러움”(23)이라고 규정한다. “장례식의 매혹”이나마 느낀 리바-아구에로보다 더 박한 평가이다. 대성당에서 노인네는 지진의 주님(Señor de los Temblores)을 에르네스토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예기치 않은 친절을 베풀고, 그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는다. 1650년 대지진 때 신통력을 발휘했다는 전설이 담긴 검은색 피부의 예수상으로, “대성당 문에 모습을 드러내면 쿠스코의 모든 인디오가 도시가 떠나갈 듯 함성을 지른다”(24)는 문화횡단적 기념물이다. 그러나 에르네스토는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을 끝없이 겪는 이로 분(扮)하여 고달픈 사람들이 더욱 고뇌하게”(25) 만들 뿐이라고 느껴서 더 괴로움을 느낀다. 지진의 주님이 문화횡단적 기념물이 아니라 적그리

8 다만, 평생 쿠스코에 대해서만 연구한 역사학자 빅토르 앙글레스 바르가스는 이 전설이 허구라고 본다(Angles Vargas 1999, 320-331).

스도 같은 존재라는 의심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소년은 “쿠스코가 무서워졌다”, “쿠스코보다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들 장소는 없을 것이다”(25)라고 말한다. 그가 겪은 쿠스코는 위대한 도시가 아니라 무서운 도시였고, 그래서 울음까지 터뜨린다. 자아와 세계의 불화가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이 인디오 풍고(pongo)이다. ‘풍고’란 콜로노들 중에서 대지주의 저택으로 차출되어 가장 허드렛일을 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에르네스토는 노인네 저택에 도착했을 때부터 풍고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가 에르네스토 부자를 맞이했는데, 맨발에 겨우 무릎까지만 이르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약골 모습이었고, 다른 사람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12). 두 번째 보았을 때, 에르네스토는 케추아어로 풍고에게 말을 건네어 보았다. 그런데 머뭇거리다가 짧은 대답만 하고, 이내 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면서 “나를 밟아줍쇼 하는 구더기처럼 몸을 바짝 낮추는”(19) 모습을 보였다. 돈 마이와와 돈 빅토 푸사처럼 자유민 인디오들에 친숙했던 에르네스토는 이 가련한 모습에 눈물을 터뜨렸다. 다음날 세 번째 만났을 때는, 풍고가 먼저 말을 건네려고 하는 진일묘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겨우 “ैया, 아가야”(21)까지만 말할 뿐 영문 모를 울음을 터뜨렸다.

1장은 그래도 자아와 세계의 불화가 언젠가는 해소되리라는 암시로 끝을 맺는다. 쿠스코를 벗어나 잉카 시대에 태양의 축제 등 제천의식이 거행되었던 삭사이와망(Sacsayhuaman)과 아푸리막강을 지나면서 기분전환이 되는 에르네스토를 그린다. 역시 성장소설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암시적 장치를 해놓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설의 결말 부분과 연계하여 다룰 것이다.

차별적 사회구조와 권력의 식민성

아방카이의 차별적 사회구조는 쿠스코와 별반 다를 것 없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다. 대농장 파티밤바가 도시를 에워싸고 있으며, 그곳 공원은 아방카이 중앙광장보다 더 크고 더 잘 가꾸어져 있다(41). 기숙학교도 억압, 소외, 불평등 등이 만연된 페루의 차별적 사회구조와 깊은 안데스의 현실이 투영된 소우주이다. 교사 성직자들은 권위적인 태도로 군림하고, 학생들끼리의 인종·계층 차별이 만연해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마르셀

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성폭행까지 자행된다. 에르네스토는 숨쉬기조차 버거워서, 외출 기회를 이용해 치체리아(chichería, 옥수수 음료나 술을 뜻하는 치차를 파는 곳)를 기웃거리며 전통 음악을 듣거나, 교외로 나가 대자연을 접하면서 자유민 인디오 마을에서 살던 시절, 아버지와 즐거웠던 안데스 여행 등을 회상한다.

에르네스토는 교외로 나간 틈을 이용해 그곳의 콜로노들에게 말을 붙여 본다. 하지만 쿠스코의 풍고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싫어! 말 걸지 마!”라고 대화를 거부하고, 외부 사람들을 “두려움에 질려” 바라볼 뿐이다(41). 도냐 펠리파라는 인물이 주도한 치체라(chicera)들의 봉기 직후의 콜로노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치체라’는 치차를 빗거나 판매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작중에서는 대체로 출로(cholo)⁹ 여인들이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소금 매점매석에 항의해 소금을 탈취하기에 이르는데, 자신들처럼 소금 때문에 고통을 겪는 콜로노들을 위해 대농장까지 행진해 이들에게 나누어준다. 쿠스코에서부터 이미 구두쇠 유지들에게 반감을 보인 에르네스토는 치체라들의 봉기가 당연히 기쁘다. 게다가 자신 외에도 콜로노들과 연대하는 이들이 또 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된다. 그래서 같이 행진하고 대농장에서의 소금 배포 일도 돕는다. 하지만 봉기는 공권력의 개입으로 이내 진압되고, 도냐 펠리파는 도주하고, 콜로노들이 받은 소금은 회수된다. 이 과정에서 에르네스토 학교의 교장 사제가 기존질서 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는 대농장까지 가서 콜로노들에게 설교를 한다. 치체라들의 소금 배포에 연루된 에르네스토도 같이 계도할 목적으로 데려갔기에 소년은 그 광경을 목격한다. 겁박으로 일관하는 교장 사제의 설교도, “나를 밟아줍쇼 하는 구더기처럼 몸을 바짝 낮추는” 풍고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는 콜로노들의 행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노라.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고통을 겪느니. 그대들은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대농장] 주인은 그대들 모두 때문에, 나는

9 메스티소, 메스티소와 인디오의 혼혈, 고유의 문화 전통을 상실한 인디오 등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

아방카이 전체 때문에, 우리 주 하느님은 고통을 겪는 온 세계의 이들 때문에 고통을 겪노라. 우리는 이곳[현세]에 울기 위해서, 고통받기 위해서, 괴로움을 겪기 위해서 왔노라. 가시들이 심장을 꿰뚫은 우리의 성모마리아처럼! 성모님보다 더 고통받은 이가 있을까? 파티밤바 페온(peón)¹⁰인 네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인가? [...중략...] 네가 더 고통이 클까? 네가 더 많이 울었을까...?

콜로노 여인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신부는 몸을 수그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고, 외쳤다.

-올어라, 올어라. 가련한 피조물인 파티밤바 인디오들에게 세상은 눈물의 요람이노라.

모두가 전염되었다. 신부가 전염했다. 나는 페온들의 눈을 보았다. 눈물이 더러운 뺨으로, 가슴으로, 옷웃으로,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마름은 무릎을 꿇었다. 인디오들이 뒤따랐다. 어떤 이들은 진흙탕 위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태양이 봉우리마다 작열했다.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중략...]

-도둑질은 영혼의 저주이노라. 도둑질하거나 도둑질한 물건을 받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될지이다. 휴식을 얻지 못하고, 쇠사슬을 질질 끌어야 하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 눈 덮인 산꼭대기에서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고, 천벌 받은 당나귀처럼 절벽을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야 하느니라...(102-103)

아르케다스 이전부터 선주민주의 문학은 흔히 가모날(gamonal, 독립 후에 출현한 신흥지주), 세속 당국, 교구 신부를 3대 착취자 집단으로 지목했다 (Castillo Guzamán 2018, 231). 『깊은 강들』에서 치체라들의 봉기를 여지없이 진압하는 공권력, 교장 사제에게 콜로노들을 계도하게 하는 농장주, 그들을 설교로 압박하는 교장 사제는 지배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위의 인용문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우선 쿠스코의 노인네 모습, 에르네스토의 아버지가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한 그 모습이 교장 사

10 일용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책에서는 콜로노를 가리킨다.

제에 겹쳐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신앙심 깊은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혹한 착취자인 노인네의 위선이 개인의 잘못된 종교적 실천 때문이 아니라 지배 엘리트 집단의 본질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교장 사제의 설교가 콜로노들에게 “세상은 눈물의 요람”이라며 희생만을 강요하고, 기존질서를 위반하면 “저주받은 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겁박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인디오 작가 펠리페 와망 포마 데 아얄라는 이미 17세기 초에 연대기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에서 이 적그리스도적 만행을 여러 대목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가령, 선주민들은 광산에서 죽어가든, 아니면 코레히도르, 사제, 기타 스페인인들의 손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어느 스페인 사제의 강론에 분개한다(Guamán Poma de Ayala 1980, 1012). 와망 포마의 분노와 에르네스토의 분노가 몇 세기를 뛰어넘어 일치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반 탈식민주의 연구의 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아니발 키하노의 ‘권력의 식민성’(la colonialidad del poder) 개념이 연상된다.

권력의 식민적 구조는 나중에 시기, 행위주체(agente), 인구집단에 따라 인종적, 종족적, 인류학적 혹은 민족적 범주로 코드화되어 각종 사회적 차별을 야기했다. 유럽인의 식민지배의 산물인 이 구축물들은 ‘객관’과 ‘과학’의 범주로 포장되어 역사를 뛰어넘는 진실인양 치부되었다. 즉 권력의 역사가 아닌 자연의 법칙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그 권력구조는 계급주의적이거나 신분 차별적인 사회적 관계들이 작동하는 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Quijano 2021, 24).

교장 사제의 설교에 눈물의 회개로 화답하는 콜로노들은 “계급주의적이거나 신분 차별적인 사회적 관계들”을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키하노는 “유럽 문화와 비유럽 문화 사이의 식민적 관계가 피지배자의 상상계 내부에서”(Quijano 2021, 25)도 작동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문화는 선주민 노동력의 소모품화, 피지배자 지식의 하위지식화, 현실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신분상승 가능성 여부 등까지 결정짓는 일종의 문화정치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다.

상상계와 관련해서 『깊은 강들』은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여준다. 다시 잉카 로카 궁 담장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노인네, 아버지, 아들은 모두 백인이지만 동일한 상상계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담장을 “이교도의 혼란스러움, 즉 원시적 사고의 혼란스러움”이라고 폄하한 노인네의 제국적·식민적 시각은 지배자들의 상상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위대한 쿠스코 이야기를 아들에게 수없이 했지만, 대안적 세계의 상징으로서의 잉카를 상징하며 던지는 아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잉카 군주들은 죽었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시각은 “잉카 sí, 인디오 no”(Méndez G. 1996), 즉 과거의 잉카 문명은 예찬해도 동시대 인디오들의 가치는 부정하는 상상계의 소산이다. 반면, 담장에서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생명력을 발견한 에르네스토의 시각은 노인네의 상상계는 물론이고 아버지의 상상계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연이은 발언과 질문에 아버지는 이성적인 대답으로 일관했고, 나아가 아들이 “노인네가 마음을 어지럽혀서” 혹은 “낮이 빠져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진단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상상계가 키하노가 말하는 “꺾관”과 ‘과학’의 범주 지위를 획득하는 반면, 아들의 상상계는 비이성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위주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지배자의 상상계에 머무르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아버지의 경우 쿠스코를 벗어나 삭사이와망을 지날 때는 예의 이성적 논조에서 탈피한다. 그곳의 돌들이 잉카 로카 궁의 돌들 같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남을 돌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한다고, 또 ‘삭사이와망’이 ‘가득 찬 독수리’를 의미하는데 그 독수리는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고 아들에게 진지하게 전해준다(25-26). 이번에는 아버지가 잉카리 신화를 신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에르네스토의 경우는 지배자의 상상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부단히 했지만, 풍고 및 콜로노들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들이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자유민 인디오들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표식으로 치부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피지배자임에도 “유럽 문화와 비유럽 문화 사이의 식민적 관계”를 상상계 내부에서 고스란히 재생산하는 콜로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그래서 깊은 안데스를 다루는 성장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에

르네스토의 과제는 자신의 자아에도 일정 부분 내재되어 있는 식민성을 견어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피지배자임에도 지배자의 상상력을 재생산하는 콜로노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특정 주체와 사람들, 또 이들과 연관된 대다수 측면이 정상적이라 여겨지는 것에 비해 열등하고 문제적이라고 간주”되는 “식민성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인식하고 극복할 “탈식민적 전환”이 필요하다(Maldonado-Torres 2021b, 254).

존재의 식민성과 탈식민적 전환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말도나도-토레스의 ‘존재의 식민성’ 개념에서 볼 때, 콜로노들의 탈식민적 전환은 이루어졌고 에르네스토는 비로소 세계와 화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결말 부분에 대한 필자의 과거 의구심이 일소되었다. 말도나도-토레스는 2000년경 여러 학자와의 토론 중에 이 개념에 착안하였으며, 월터 미놀로와 하이데거에게 가장 큰 빛을 쬐었다고 한다(Maldonado-Torres 2007, 127). 이 개념은 “식민화의 실제 경험과 그 경험이 언어에 미치는 충격”(Maldonado-Torres 2007, 130)에 특별히 주목한다. 그리고 파농의 사유를 철학의 범주로 격상시킨 학자답게, 『깊은 피부, 하얀 가면』을 이 개념 정립을 위한 주요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분석에는 파농의 다른 저서인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정의도 등장해서, 『깊은 강들』에서 대농장의 콜로노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 사제의 설교 장면이 겹쳐지기도 한다. 말도나도-토레스에 따르면 ‘저주받은 사람들’은 “단어, 문장, 표현의 주고받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Maldonado-Torres 2021a, 293)이다. 하지만 “외침, 흐느낌. 기도, 질문, 말하기, 글쓰기로 이어지는 길”(Maldonado-Torres 2021a, 295-296)이 그 질곡, 즉 존재의 식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식민적 전환이라는 것을 파농이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에르네스토의 커다란 불만은 풍고와 콜로노들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 때문에 지배자들의 상상계가 소년의 내면에서 작동하여 그들이 열등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자아가 세계와 화해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도나도-토레스의 분석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깊은 강들』의 콜로노들이 외침에서 글쓰기로

이어지는 진화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장 사제의 설교에 그저 회개의 눈물만 흘리던 콜로노들이 미사를 요구하면서 들고일어났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서 ‘말하는 사람들’로 변신한다. 앞서 언급을 보류한, 1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변신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푸리막강에 도달한 에르네스토는 계곡을 내려가면서 강물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아푸리막 마유”(아푸리막강)를 크게 외친다.

강물 소리는 고요하지 않고 환호한다.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예감하게 해준다. 강가에 우거진 갈대가 요동친다. 물길은 언덕을 달리는 커다란 말처럼 성큼성큼 진군한다. 채추아어를 쓰는 아이들은 애정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품고 되풀이 말한다.

—아푸리막 마유! 아푸리막 마유!(26)

아푸리막의 ‘아푸’(apu)는 산봉우리나 산신령을 뜻하고, ‘리막’(rímac)은 말하는 자(hablador)를 뜻한다. 또 ‘말하는 자’는 신탁을 내리는 영험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아푸리막강이 우기 때 급격하게 수위가 올라가면, 물살이 빨라지고 포효하듯 소리를 내어 ‘신성한 강’, ‘말하는 강’으로 여겨졌다.¹¹ 인용문에서 이 강이 선주민 아이들이 “약간의 두려움(espanto)”을 느끼는 존재라고 적고 있는데, 이때의 두려움은 쿠스코에서 느낀 무서움의 감정이라기보다 경외심에 가깝다. 그래서 에르네스토가 외치는 “아푸리막 마유”는 결말 부분에서 콜로노들이 존재의 식민성을 극복하고 말하는 존재, 소년이 경외심을 느낄 정도로 충분히 존중받는 존재가 되리라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치체라들의 봉기가 진압된 이후 아방카이는 에르네스토에게는 더 감내하기 힘든 곳이 된다. 군부대가 파견되고, 주동자 도냐 펠리파를 추적하고, 멧진 야간 퍼레이드로 주민들의 비판적 의식을 무디게 하고, 교장 사제는

11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는 『잉카왕실사』에서 여러 차례 아푸리막강을 언급한다. 잉카 군주들이 원정을 떠날 때 빈번하게 건너야 했던 강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말하는 유력자 혹은 대장(el principal o el capitán que habla)’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 아푸리막강이 ‘카팍 마유’(Cápac Mayu)로 불리기도 한다고 적고 있다. ‘카팍’은 잉카 군주를 가리키는데, 세상 모든 강의 강이라는 뜻에서 아푸리막강을 ‘카팍 마유’라고 불렀다는 것이다(Vega 1995, 544). 잉카인들이 이 강을 신성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다시 나서 공권력을 옹호하는 설교를 한다. 언뜻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장인 이 장의 제목을 ‘야와르 마유’로 삼은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 장 역시 전반적으로 자아와 세계의 불화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허해진 에르네스토는 치체리아에 가서, 안데스 하프 연주자의 감미로운 연주를 듣는다. 하지만 “바위투성이 계곡”을 흐르는 “깊은 강들”이 있는 지역, “물살이 격류를 이루어 사납기만” 한 지역에서 감미로운 연주가 일관하는 것이 못마땅하기만 하다(152).

하지만 이 장 말미에서 뜻밖의 인물이 급진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정신질환자로 일부 학생들의 추잡한 욕구의 대상이었던 여성인 마르셀리나이다. 그녀는 혼자 탑에 올라 시내에 나온 아방카이의 유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시내와 교외를 잇는 파차차카(Pachacha) 다리에 걸려 있던 도냐 마리아의 스카프를 습득한 다음날이었다(166).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풍고와 콜로노들 만큼이나 억압받는 인물인 여인이, 기존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한 도냐 펠리파의 물건을 얻은 뒤 최후의 심판자가 된 듯한 양상이라서 의미심장하다. 더구나 파차차카강에 놓인 동명의 그 다리는 식민지시대인 17세기 중반에 건설되어 식민지배의 상징, 기존질서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터이다. 그 상징물에 내걸린 봉기주동자의 스카프를 가장 소외된 이가 획득한 뒤 마치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띤다. 식민지시대 이래의 차별적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리라는 예고이고, 가장 소외된 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콜로노들의 탈식민적 전환도 가능하리라는 암시이다.

역병 티푸스가 번진다. 맨 처음 걸린 사람이 마르셀리나인데, 그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해 버리고 만다. 역병이 견잡을 수 없이 번지고, 콜로노들이 미사를 요구하며 봉기한다. 가장 돈독한 기독교도인 교장 사제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 반면, 가장 소외된 인물인 마르셀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 그녀의 죽음 이후 콜로노들이 각성했기 때문이다. 역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에르네스토는 마르셀리나와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며칠 간 격리된다. 그 상태에서 오직 콜로노들만 역병 소식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에르네스토는 콜로노들이 “남의 땅에 구더기처럼 번식하고, 갓난아이들처럼 울기나 하는”(186) 비인간적 존재들이라 역병 발생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쓰여 격리가 풀린 뒤에 파티밤바 농장으로 향하는데, 무장 경비병들의 제지로 시내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시내에서 한 군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파티밤바를 비롯한 15개 대농장의 콜로노들이 아방카이를 향해 물밀 듯이 몰려온다는 것이다. “언덕을 달리는 커다란 말처럼 성큼성큼 진군”하는 물길이라는 1장 말미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들은 행진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미사를 드려달라고 “성당, 성당”을 외친다. 드디어 존재의 식민성을 극복하고 ‘말하는 자’, 나아가 ‘행동하는 자’가 된 것이다. 대지주들은 감히 그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공권력도 마비된다. 콜로노들에게 겁먹는 경비병들까지 생기고, 도시와 성당을 망치더라도 그들을 막지 말라는 명령이 상부에서 하달된다. 교장 사제는 군인들이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그들을 막겠거니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에르네스토의 말을 듣고 몹시 당황스러워한다. 존재의 식민성을 극복한 콜로노들의 기세가 착취자 집단들의 카르텔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에르네스토의 자아와 세계의 불화도 마침내 극복된다.

이 결말에 대해 과거의 필자처럼 구체적인 사회변혁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이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작품의 배경이 1920년대 중반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시절의 깊은 안데스를 다루는 소설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거짓말”이다. 1장에서 쿠스코가 “위대한 도시”가 인식될 수 없는 것만 해도 그렇다. 쿠스코는 18세기 말부터 쇠락했다. 투팍 아마루 2세의 봉기(1780)로 백인 지배층이 대거 떠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라플라타 부왕령의 신설(1776)에서 19세기 초의 독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를 잇는 교통의 요지라는 과거의 지위도 상실했다(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2009, 19). 물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의 일부 발전으로 1925년에는 쿠스코가 남부 안데스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꼽혔다고는 한다(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 2009, 19-20). 그러나 18세기 말 이래의 쇠락의 골을 생각하면 과거의 영광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다. 쿠스코의 본격적인 부흥은 1950년 대지진 이후였다.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불가피했고, 이때 잉카 시대와 식민시대의 유적들을 이용한 근대화된 관광 도시로 본격적인 부흥 전략을 짰고 그것이 주효해서 (Silverman 2002, 884-887) 다시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있었다.

작중의 아방카이는 분명 쿠스코보다 더한 상황이다. 인근에 무려 15개의 대농장이 있다는 것은 대농장 중심의 식민적 사회구조가 근대화 과정에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뜻이다. 아르케다스가 만타로 계곡 조사를 통해 얻은 신념이 투영될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페루 문화 과정과 산악 지대 *La sierra en el proceso de la cultura peruana*」(1953)에서 만타로 계곡의 물질 토대가 일련의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그 시작은 19세기 말 파스코(Pasco)와 후닌(Junín)의 근대적 광업이었다. 그 덕분에 1893년 철도가 부설되고, 1909년 왕카요까지 노선이 연장되었다. 철도는 만타로 계곡의 소농들에게 리마라는 시장에 접근 가능하게 했고, 틈틈이 광산에서 일하며 얻은 부수입을 농업에 적절히 투자하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되었다. 다만 아르케다스는 만타로 계곡이 페루에서 아직 예외적인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Arguedas 1987, 11-12). 1950년대의 아르케다스가 깊은 안데스의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는 있었겠지만, 1920년대의 아방카이에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투사할 계제는 분명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르케다스가 만타로 계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낙관적 전망을 『깊은 강들』에서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 전망은 『다이아몬드와 석영 *Diamantes y pedernales*』(1954), 『깊은 강들』, 『모든 피 *Todas las sangres*』(1964)의 꾸준한 창작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Ortiz Rescaniere 2004, 13),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아르케다스가 1941년 중편 소설 『피의 축제 *Yawar fiesta*』를 발표한 뒤에는 민족지학과 인류학 연구에 매진했던 터라 다시 창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타로 계곡이라는 예외적인 사례를 통해 낙관적 전망을 획득한 만큼 문학이 지닌 허구적 특성이야말로 그 전망을 투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행단이 바로 그 열쇠였다. 사실 아르케다스는 『피의 축제』에서도 문화행단을 통한 낙관적 전망을 표출했다. 정식 투우사 없는 투우 축제는 불허한다는 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용감하게 투우와 맞서는 안데스식 투우를 인디오들이 관철시킨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그 후 아르케다스가 오랫동안 창작에 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문화행단적 신념이 아직은 확고하지 못해서 앞 소설의 기초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다. 아무튼 『깊은 강들』의 1장에서 문화행단적 쿠스코에서 “위대한 도시”의 면모를 보려고 했던 에르네스토의 부단한 시도는

이 소설이 만타로 계곡 조사연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아르케다스는 『깊은 강들』이 발간된 바로 그해 어느 집담회에서 발표한 「경제적으로 튼튼한 선주민 공동체의 문화 변화 *Cambio de cultura en las comunidades indígenas económicamente fuertes*」(1958)에서 문화횡단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식민지시대 영주 전통의 담지자인 지주 상류층이 약했다는 점,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 마찬가지로 식민적 전통의 담지자인 교회가 약했다는 점이 만타로 계곡을 문화적 양극화로부터, 또 근대 문화의 확산에 저항하는 강력한 집단들의 형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Arguedas 1987, 29).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양극화는 리마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지대 문화와 안데스 문화의 양극화를 말한다(Arguedas 1987, 12). 근대화 과정에서의 경제적 소외 때문에 안데스의 지주 계층과 교회가 변화에 저항하는 구심점이 되고, 이들의 헤게모니 때문에 인디오들 역시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외래 문화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횡단적 주체로 변신할 기회가 봉쇄되어 버리는 깊은 안데스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르케다스는 『깊은 강들』의 결말에 대해 “전적으로 마술적 충위의 이유 때문에도 봉기할 수 있다면, 자신들의 삶과 같은 더 직접적인 사안을 위해 투쟁할 때면 어찌 봉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한다. 1920년대 현실 때문에 보다 선명한 사회변혁적 주체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미사를 요구하는 문화횡단적 주체로의 탈식민적 전환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필자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러했듯이, 콜로노들이 토착 신앙이 아니라 가톨릭 같은 외래 신앙 때문에 봉기한다는 설정을 의외하게 생각할 이들이 많을 것 같다. 나아가 콜로노들의 행동이 탈식민적 전환이 아니라 영혼의 정복¹² 상태를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할 이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르케다스가 언급한 가톨릭은 “마술적 충위”의 가톨릭이다. “유럽

12 16세기 프란치스코회 수사 토리비오 데 베나벤테(Toribio de Benavente)가 처음 사용하고, 프랑스 사학자 로베르 리카르(Robert Ricard)가 ‘가톨릭을 통한 식민화 과정’이라는 스페인 정복 사업의 특징을 규정하고자 사용한 용어(Jo 2018).

문화와 비유럽 문화 사이의 식민적 관계가 피지배자의 상상계 내부에서” 작동하는 식민적 요소로서의 가톨릭과는 다르다. 두 가톨릭의 구분은 이미 노인네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노인네와 교장 사제의 유사성을 드러냈을 때 일찌감치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와망 포마의 『새로운 연대기와 선정』에 대한 월터 미놀로의 해석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가톨릭에 입각한 탈식민적 전환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디드로, 루소, 칸트, 스피노자, 맑스, 프로이트 같은 세속적 비판 담론들이 아직 출현하지 않아서, 오직 가톨릭 담론만이 역사적·윤리적 기준이었던 와망 포마의 시대에는 가톨릭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사악한 기도교도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Mignolo 2021, 190-191). 아르케다스 역시 와망 포마와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다. 콜로노들의 미사 요구는 지배자들에게 가톨릭의 윤리 기준을 준수하라는 촉구, 그럼으로써 지배 이념에 균열을 내는 행위였다. 그 뒤에 벌어진 행진, 야와르 마유를 연상시키는 거침없는 행진은 콜로노들이 탈식민적 전환을 통해 존재의 식민성을 극복했고, 에르네스토가 이 변화를 똑똑히 인식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깊은 강들』은 용두사미의 성장소설이 아니라 수미상관의 성장소설인 것이다.

나가면서

최근 다니엘 카리요 하라(Daniel Carrillo Jara)는 ‘컴퓨터를 이용한 문학연구: 도전과 가능성’이라는 강연에서 페루 문학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계량적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페루 문학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연구되는 작가는 바르가스 요사, 바예호, 아르케다스 순이었다. 아르케다스의 이러한 현재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깊은 강들』이 1950년대에 호평을 받고, 덕분에 아르케다스가 국민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인디오들에 대한 공감 능력, 미학적 완성도, 서정성, 기존 선주민주의 문학의 혁신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아르케다스의 현재성도 동일한 이유 때문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이 요소들 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존재한다. 플로레스 갈린도만 해도 문학도가 아닌 역사학자이면서도 리바-아구에로의 시각을 비판하기 위해 『깊은 강들』의 한 부분을 이용했다. 이 작품에서 페루 역사에

대해 재성찰할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깊은 페루를 말하는 바사드레와 깊은 강들을 말하는 아르케다스의 경우는 또 어떤가? 한 사람은 역사학자로서, 또 한 사람은 문인이자 인류학자로서 지역간 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필자는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탈식민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깊은 강들』을 재해석했다. 아르케다스의 작품이 문학을 넘어 다양한 층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르케다스의 사유와 그의 작품 세계의 의미를 철학의 범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까지 있다. 우고 차콘 말라가의 경우로, 그는 이를 ‘야와르 마유 철학’이라고 지칭하고 있다(Chacón Málaga 2021, 213-265).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철학을 정립한 것처럼, 페루에서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이라고는 하지만 분과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우주론 수준의 사유 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필자의 해석은 『깊은 강들』이 존재의 식민성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는 수준의 것이어서 탈식민적 전환 과정에 주목했을 뿐이다. 반면, 야와르 마유 철학은 아르케다스를 통해 서구 사유와는 완전히 결별한 독자적 사유 체계를 정립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더 가깝다. 아르케다스의 현재성은 이렇듯 새로운 관점의 해석, 더 큰 스케일의 접근 방식을 낳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만 해도 『깊은 강들』에 대한 필자 개인의 완결판을 목표로 했지만, 또 다른 성찰 과제가 생긴 셈이다.

참고문헌

- Acosta, Andrés(2010), “La visión del futuro del Perú,”
<https://andresacosta.lamula.pe/2010/11/16/la-vision-de-futuro-del-peru-de-jorge-basadre-grohman/sherman/>
- Alemaný Bay, Carmen(2019), “La narrativa sobre el indígena en América Latina. Fases, entrecruzamientos, derivaciones,” (translated by Woo Suk-kyun), *Global World Literature*, No. 13, pp. 151-169.
- Angles Vargas, Víctor(1999), *La basílica catedral del Cusco*, Lima: Industrial Gráfica S. A.
- Arguedas, José María(1983), *Los ríos profundos, Obras completas*, Vol. 3, Lima: Editorial Horizonte.
- _____(1987), *Formación de una cultura nacional indoamericana*, 4ª ed., México, D.F.: Siglo XXI.
-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2009), *Informe económico y social. Región Cusco*,
<https://www.bcrp.gob.pe/docs/Proyeccion-Institucional/Encuentros-Regionales/2009/Cusco/Informe-Economico-Social/IES-Cusco.pdf>
- Castillo Guzmán, Gerardo(2018), “Mundos sociales y espacios festivos en el *Yawar fiesta* de José María Arguedas,” *Letras*, Vol. 89, No. 130, pp. 224-241.
- Chacón Málaga, Hugo(2021), *El Cusco de José María Arguedas*, Cusco: Centro Bartolomé de las Casas.
- Flores Galindo, Alberto(1994), *Buscando un Inca: identidad y utopía en los Andes*, 4ª ed., Lima: Editorial Horizonte.
- González Vigil, Ricardo(1995), “Introducción,” in José María Arguedas, *Los ríos profundos*, Madrid: Cátedra, pp. 9-108.
- Guamán Poma de Ayala, Felipe(1980), *El primer nueva corónica y buen gobierno*, edición crítica de John V. Murra y Rolena Adorno, México, D.F.: Siglo XXI.
- Jo, Young-hyun(2018), “La evangelización y la colonialización de América Latina: *La conquista espiritual de México* de Robert Ricard,” in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d.), *Walking through Latin American Classic Books*, Seoul: Greenbee, pp. 15-28.
- Kang, Seong-sik(2008), “El mito de Incarrí, el anhelo en los Andes,”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1, No. 4, pp. 139-164.
- Larco, Juan(recopilación)(1976), *Recopilación de textos sobre José María Arguedas*, La Habana: Casa de las Américas.
- Maldonado-Torres, Nelson(2007), “Sobre la colonialidad del ser: contribuciones al

- desarrollo de un concepto,” in Santiago Castro-Gómez y Ramón Grosfoguel(ed.), *El giro decolonial: Reflexiones para una diversidad epistémica más allá del capitalismo global*, Bogotá: Universidad Central/IESCO-UC/Pontificia Universidad Javeriana/Pensar, pp. 127-167.
- _____(2021a), “Language, Literature and Decoloniality: A Fanonian Meditation,” (translated by Woo Suk-kyun), in Woo Suk-kyun (ed.), *Orbis Tertius: Listening to Latin American Erudite Scholars*, Seoul: Greenbee, pp. 285-298.
- _____(2021b), “The Decolonial Turn,” (translated by Jeong Eun Annabe We), in Woo Suk-kyun (ed.), *Orbis Tertius: Listening to Latin American Erudite Scholars*, Seoul: Greenbee, pp. 253-284.
- Méndez G., Cecilia(1996), “Incas Sí, Indios No: Notes on Peruvian Creole Nationalism and its Contemporary Crisi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8, No. 1, 1996, pp. 197-225.
- Mignolo, Walter(2021), “Epistemic Disobedience and the De-Colonial Option: A Manifesto,” (translated by Woo Suk-kyun), in Woo Suk-kyun (ed.), *Orbis Tertius: Listening to Latin American Erudite Scholars*, Seoul: Greenbee, pp. 165-208.
- Ortiz Rescaniere, Alejandro(2004), “Prefacio,” in Carmen María Pinilla(ed.), *Arguedas en el Valle del Mantaro*, Lima: Fondo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pp. 13-18.
- Ortiz, Fernando(2018), “Del fenómeno social de la “transculturación” y de su importancia en Cuba,” (translated by Cho Hye-jin), in Woo Suk-kyun, Cho Hye-jin y Jorge Fornet (eds.), *Cuba que vivió historia: nuestra América, AfroCuba, (neo)barroco y testimonio*, Seúl: Geulnurim, pp. 99-107.
- Quijano, Anibal(2021), “Colonialidad y modernidad/racionalidad,” (translated by Kim Jong-kyu), in Woo Suk-kyun (ed.), *Orbis Tertius: Listening to Latin American Erudite Scholars*, Seoul: Greenbee, pp. 23-39.
- Riva-Agüero, José de la(1955), *Paisajes peruanos*, Lima: Imprenta Santa María.
- Rowe, William(2008), “When Was Peru Modern? On Delarations of Modenity in Peru,” (translated by Kang Seong-sik), in Nicola Müller and Stephen Hart (eds.), *When Was Latin America Modern?*, (translated by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Greenbee, pp. 173-214.
- Silverman, Helaine(2002), “Touring Ancient Times: The Present and Presented Past in Contemporary Peru,” *American Anthropologist*, Vol. 104, No. 3, pp. 881-902.

- Vargas Llosa, Mario(2004), *La utopía arcaica: José María Arguedas y las ficciones del indigenismo*, 2a reimpresión,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Vega, Inca Garcilaso de la(1995),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2 tomos, 1a reimpresión, México, D.F.: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VV.AA.(1986), *Primer encuentro de narradores peruanos*, 2a ed., Lima: Latinoamericana Editores.
- Woo, Suk-kyun(2003), “La piedra de los incas y José María Arguedas,” *Silcheon-Munhak*, No. 71, pp. 297-304.
- _____(2006), “¿Una hibridez cultural o un conflicto cultural?: en torno a la utopía andina,” in Departamento de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d.), *Hacia una convivencia superando diferencias; una lectura de la cultura hispánica*, Seúl: Snupress, pp. 169-198.

Article Received: 2023. 03. 19

Revised: 2023. 03. 21

Accepted: 2023. 04. 06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 이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국영문혼용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규칙을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 제4조 (설치) 본 학회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5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를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7조 (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학문분야별 다양성과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인 지명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 제8조 (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 (개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사이버 편집위원회도 이에 준한다.

제3장 투 고

- 제10조 (투고자의 자격)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의 회원
 -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 (요령)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요령을 따라야 하며 이는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심 사

- 제12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결과는 별도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이용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선정) 본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고정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투고논문 주제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 획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수) 한편의 논문에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와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 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7조 (심사결과와 처리) 심사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별표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결과를 처리한다.

제18조 (심사비의 납부)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발 행

제19조 (발행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부터 연 3회 간행한다. 발간일은 2020년에는 2, 6, 10월의 말일에, 2021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1조 (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라틴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 개정, 발효되었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개정, 발효되었다.

별표 1: 심사결과의 처리기준표

A(90-100): 게재 (편집상의 수정, 보완 포함)

B(80-89) : 수정 후 게재

C(0-79) : 전면수정 후 다음 호 재심

D : 게재불가

심사평			심사결과 처리기준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A	A	A	(1) 편집상의 수정, 보완 후 게재
A	A	B	(2)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A	A	C	
A	B	C	(3)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확인 후 게재
B	B	A	
B	B	B	
B	B	C	(4)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보고서 심의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or 다음호 재심 or 제4심사자 심사의뢰 ※ 제4심사자 심사의뢰 시 판정이 A나 B이면 수정보고서 심사 후 게재 혹은 추가수정 요구
A	C	C	(5) 다음호 재심
B	C	C	
C	C	C	

※ 다음호 재심 판정을 두 번 받은 논문은 게재불가(D)로 처리하여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다음호에 재 투고된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자 수를 1인-3인으로 정한다.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인 심사의 경우: A or B

2인 심사의 경우: AA or AB or BB (AC or BC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인 심사의 경우: 위 표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한다.

※ 3인의 심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게재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안에 따라 (4)나 (5)에 준해 처리하거나 최종 게재불가(D) 판정을 내린다.

최종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추후 투고를 받지 않는다.

※ (4)의 심사결과에서 당해 호 논문 수록을 위한 제4심사자 심사의뢰는 학술지 발간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와 관련하여 모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로,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그 해당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투고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의무를 명시하여 투고자들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라틴아메리카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의 모든 학술행사와 출판물에 제출되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 개요)

- (1) 연구자는 각자 연구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2) 연구윤리의 범위는 연구활동,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출판 등을 포괄한다.

제4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본 학술지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학문적 독창성 침해: 타인의 연구업적(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표절 혹은 침삭하여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 (2) 학문적 객관성 침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인용 혹은 사용되는 각종 문헌의 출처 및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 변조함으로써 학문적 객관성을 침해하는 경우
- (3)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자 소속과 직위의 허위 기재,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한 저자 자격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4) 중복투고 및 자기표절: 동일 연구자가 타 학술지 혹은 단행본 등의 연구물 혹은 논문의 일부를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중복투고하는 행위
- (5) 기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시,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제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표절 행위가 드러날 경우 『라틴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 기능을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이 연구윤리 위반행위 의혹 당사자인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이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학회 임

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1) 누구든지 구두, 서면, 전화, 우편 및 전자우편, 연구소 홈페이지 제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편집위원회에 위반행위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2) 제보 접수는 실명 제보인 경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제보를 접수한다.

제7조 (연구윤리 위반행위 심의 및 소명)

- (1)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2주일 안에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 (3) 제보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부당한 압력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 연구위반 행위 의혹 당사자에게 서면을 통해서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출석을 통해서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5)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6)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참여자 모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 (7)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최종 부여한다.
- (8)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된 후,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9) 연구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연구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연구위반 당사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2) 학술지 투고논문과 관련된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논문투고를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제한한다.

- (3) 논문게재 이후에 연구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홈페이지와 회원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라틴아메리카연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4)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지침에 따라 재단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 (1) 『라틴아메리카연구』의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최초 제정, 발효되었다.
- (2) 현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10월 10일 개정되었다.
- (3)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라틴아메리카연구』(ALAS) 투고요령

1.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에서 발간하는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관한 지역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학술지이며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 본 학회는 회원과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 주실 원고는 언어에 상관없이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합니다.
3. 게재 신청을 하실 논문의 연구 분야나 제목은 제한이 없으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논문을 보내실 때는 원고작성 요령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서 e-mail(lasak@naver.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소정 양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라틴아메리카연구』는 연 3회 발간(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되며 원고마감일자 없이 수시로 논문을 접수합니다. 논문게재는 원칙적으로 투고일자 순서로 되며, 늦게 투고되는 논문은 학술지 발간계획에 따라 다음호로 게재를 미룰 수 있습니다.
6. 논문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학회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합니다.
7. 학회지 기고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고송달의 경우 궤봉투에 반드시 학회지 원고게재 신청이라고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접수 이메일: lasak@naver.com

『라틴아메리카연구』(AJLAS) 원고작성요령

『라틴아메리카연구』에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된 모든 주제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을 통해 출판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논문작성언어는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모두 가능합니다. 논문 길이는 10,000 단어 이내와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준 분량 초과시 편집위원회는 분량 축소를 요구하거나 게재를 다음호로 미룰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은 아래한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용해주시시오. 그림, 표, 지도, 그래프 등은 투고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출판시의 제 문제를 고려하여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연구』는 또한 최근의 학술적 동향을 신속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노트(Note)와 리뷰 에세이(Review Essay) 섹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섹션에 투고된 글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됩니다. 분량은 원고지 기준 40매 이상으로 최근 주요 이슈, 연구동향, 주목할 만한 연구서를 소개하시면 됩니다. 단, 주제나 게재 가능 여부는 편집위원회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 요령>

투고원고는 이전 학술지를 참고하여 제목, 성명 및 소속, Abstract, Keywords,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투고논문은 반려합니다.

1. 제목

학술경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제목 맨 뒤에 *표를 하시고 각주에 경비지원 내용과 과제번호를 밝힌다.

예)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02-A00255).

2. 성명 및 소속

성명 및 소속은 한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한국어로, 외국어로 작성한 논문은 외국어로 표기한다. 소속 앞에는 단독 혹은 공동저작 사항을 표시한다. 맨 뒤에 *표를 하고(학술비 지원논문의 경우 **) 각주에 저자의 영문 소개를 덧붙인다. 외국어 이름을 표기할 때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며, 이름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투고자의 e-mail 주소는 각주 저자소개 뒤에 쓴다. 공동저작의 경우 주 저자를 앞에 기타 저자를 주 저자 뒤에 쓴다.

예) 홍길동

단독/서울대학교*

* Kil-Dong Hong is a HK research professor of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dh@snu.ac.kr).

3. Abstract

초록은 200단어로 영어로 작성한다.

4. 키워드

키워드는 5개 내외로 영어와 국문으로 작성한다.

예) Keywords: Political chaos, Ladino, Mayan aborigines, Obvention and contribution, Speaking cross / 정치적 혼돈, 라디노, 마야원주민, 종교적 세금과 부역, 말하는 십자가

5. 본문 주석: 약주 사용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될 경우 괄호 안에 연도만 표시. 저자의 이름이 한 글일 경우 저자의 성을 영문으로 함께 표기.
예) 홍길동은(Hong 1999) 세계화의 당위성을 강력히 지지한다.
Drake(1966)는 이 조약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한 바 있다.
- 2) 저자의 이름을 본문에 언급하지 않고 인용한 경우는 성과 연도 표시
예) 세계화의 폐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uentes 1979).
- 3) 인용 페이지를 밝힐 경우에는 ‘;’ 뒤에 페이지 표시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Hong 1983, 22-25).
- 4) 인용 책 혹은 논문의 저자가 둘일 경우에는 가운데 ‘and’로 구분.
예) 리오 회의에서도 세계화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Lagos and Fuentes 1983, 22).
- 5) 저자가 세 명 이상일 때는 ‘et al.’을 사용.
예)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 6) 인용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로 구분
예) (Lacan 1974, 45; Derrida 1977, 22-23)
- 7) 참고문헌에 동일인이 같은 해에 쓴 저작이 다수 포함되어 인용을 할 때 연도 표기만으로 구별이 되지 않을 경우 알파벳 소문자 사용.
예)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23)
- 8) 재인용 방법
예) Lacan의 말을 Derrida 책에서 재인용할 경우: (Derrida 1974, 45, 재인용)

6. 표와 그림

- 1) 각각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로 표기하며 표 1.은 내용의 위에 그림 1.은 내용의 아래에 위치시킨다.
- 2) 표와 그림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부분을 a, b 등으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가급적 본문에 인용된 것만 적는다.
- 2) 저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 3) 동일 저자의 출판물은 오래된 것부터 연대순으로 배열한다. 같은 연도에 여러 편의 저술이 있을 경우 1999a, 1999b, 1999c 등으로 분류한다. 이때도 먼저 나온 것을 1999a로 삼는다. 동일저자의 출판물 중 단일저작과 공동저작이 있을 경우 전자를 후자에 앞서 배열한다.
- 4) 한국어 참고문헌과 논문 및 인터넷 자료도 영어로 표기하여 외국어 자료와 함께 정리한다.

예) Hong, Kil-Dong(2010), "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영문 참고문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한국어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괄호 속에 영문 번역을 병기한다.

예) Hong, Kil-Dong(2010), "Mexico Kukkeongilui Gachi(Value of National Holidays in Mexico)," *Jungnammi Yeongu(Latin American Affairs)*, Vol. 1, No. 2, pp. 1-33.
- 5) 단행본 - 저자(연도),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명

예) Von Mis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trunc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 6) 저널 논문 - 저자(연도), 제목, 저널 이름, 권(Vol.), 호(No.), 페이지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 ‘권’과 ‘호’ 표기법에 유의: 첫 글자는 대문자, 철자에 유의, 로마자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로.

** 계절, 달, 날짜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No.와 페이지 사이에 쓴다.

예)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March, pp. 1-18.
- 7)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 - 저자(연도), 제목, 편자, 제목, 출판 장소: 출판사, 페이지

예)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 8)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문헌으로 올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를 가장 뒤에 쓰고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인터넷 논문이라도 발간 연도를 아는 경우에는 저자 뒤에 연도를 밝힌다.

예) Ortega, Daniel(2001), “La histoirra inconclusa,” <http://www.danielortega.cl>

*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주석을 염두에 둘 것.

8. 외국어 표기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우리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에 준할 수 있다.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Submissions and Review Process

Contributions to AJLAS are invited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rticles may be written in English, Spanish, Portuguese, or Korean and they will be published in the original language. Each contributor will receive, free of charge, ten off-prints of the article and a copy of the issue of the Journal in which it appears. Manuscripts must be original research; AJLAS will not consider papers currently under review at other journals or that duplicate or overlap with parts of a book or larger works that have been submitted or published elsewhere. If there is doubt about whether the manuscript is acceptable, authors should discuss this issue in a cover letter to the managing editor. Review essays are also considered. Submissions are accepted on a rolling basis.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Instructions for Contributors

1. All contributions and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ubmitted to the journal: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omepage: <http://www.ajlas.org>

Attn: Dr. Gyoung-Mo, Gu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public of Korea
Email: lasak@naver.com

2. Formatting of Manuscripts:

- Length: Manuscripts should not be longer than 10,000 words, including text, tables, figures, title page, and references.
- Style and Layout: Font size should be 'Garamond' throughout the work: text 10.5 point, footnotes 8.5 point.

- The entire paper should be double-spaced; please do not submit double-sided copies.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sequentially.
 - Manuscripts should be ordered as follows: title page, text, abstract, keywords, appendices, references, tables, figure captions, figure pages.
 - Titles, subtitles, and text subheadings should be chosen for succinctness and interest. The title page should also contain the name, academic rank, institutional affili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dress, telephone, e-mail) for all authors. In the case of multiple authors, the title page should indicate which author will receive correspondence.
 - Submission Form: All submissions should include this manuscript submission form, available in Word or PDF format. An abstract (200 words) should be included with the submission form.
3.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directly to the managing editor. Please submit properly-formatted electronic manuscripts (a single file containing all parts of the paper) in Microsoft Word.

4. References and Citations:

In text, quotations must correspond exactly with the original in wording, spelling, and punctuation. Short quotations within the text should be noted by quotation marks; longer quotations or extracts should be indented from the left margin and require no quotations marks. Changes and additions to quotations should be identified by bracketing; ellipses [...] should be used to identify omissions; emphasis added should also be indicated. Embedded citations should be used, hence please do not use footnotes for simple citations. All citations should be specified in the text in the following manner:

- (a) If the author is named in the text, cite by year of publication:
 ... Drake (1966) has suggested ...
- (b) If the author is not named in the text, cite by last name, and year of publication:
 ... it has been noted (Fuentes 1979) that ...
- (c) If necessary, pagination should follow the years of publication separated by a comma
 ... it is argued (Lagos 1983, 22) that by ...

- (d) Dual authors should be joined by 'and' multiple authors should be indicated by 'et al.':
 - ... other approaches (Snyder and Diesing 1977, 392) may assume (Alessandri et al. 1971, 217-221).
- (e) If an author has multiple references for any single publications year, indicate specific words by the use of lower case letter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 ... the one hand (Lacan 1974a, 45; Lacan 1974b, 22) ...
- (f) Series of references should be enclosed within parentheses and separated by semicolons; items should be ordered chronologically, by year of publication, and alphabetically within any year:
 - ... proponents of the position (Russett 1981; George 1982; Holsti 1983; Starr 1983) and many ...

The reference section should begin on a new page following the text and any appendices. Work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by author, followed by a section listed alphabetically by institution - or title of any material not attributed to any specific author(s). References should conform to the following format:

- (a) References to book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 Von Mises, L.(1983), *Nation-State and Economy: Contributions to the Politics and History of Our Time*, Leland B. Yeager(tra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 Strunk, W. Jr. and E. B. White(1979), *The Elements of Time*, 3rd ed., New York: Macmillan.
- (b) References to journal articl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of article, journal name, volume, number(s) and inclusive pages:
 - ... Lipset, S. Ni(1983), "Radicalism or Reformism: The Sources of Argentine Working-class Politics,"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77, No. 2, pp. 1-18.
- (c) References to works in edited volumes should list author(s), year, essay title, volume editor(s), volume title,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 and inclusive pages:
 - ... Weber, M.(1984), "Legitimacy, Politics and the State," in William Connolly(ed.), *Legitimacy and the Stat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p. 32-62.
- (d) References to monographs in a series should list author(s), year, title, series

title, place of publication, and publisher:

... Fromkin, M.(1986), *The Limits of Recognition, Sanger Series on Law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Haven: Sanger Publishers.

Page proofs will be supplied to the first author of a paper, but only errors in the type setting may be corrected at this stage. Any substantial alterations will be charged to the author(s). Consequently, the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 paper is submitted in final form. Proofs should be corrected and returned within seven days of receipt.

Manuscript Formatting Information

<http://www.ajlas.org/>

Review Process

1. Initial Review: Upon receipt of the manuscript, the managing editor or other area specialist will make an initial assessment of the article and ensure that all required information for the submission process has been included. If any information is missing, the reviewer will contact the author.
2. Full Review: After the initial review is completed, an electronic version of the manuscript will be sent out to three reviewers. The authors will receive the reviewer's comments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corrections and resubmit.
3.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fter authors revise and resubmit, the manuscript will undergo a final review prior to publication. The time from submission to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may be as little as two-three months to as long as a year. Publication dates are April 30, August 31 and December 31. Authors will receive ten off-prints and a copy of the journal in which the article appears.
4. Rejection: This may occur during either the full review or after the final review and publication. Authors will be notified as quickly as possible if their manuscript is rejected so that they may seek publication elsewhere.

Code of Research Ethic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is to establish ethical standards to be adopted by all contributors and required for publication in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hereinafter “AJLAS”),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Associ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efines what constitutes a case of misconduct and specifies by category different types of research ethics violations. In doing so, the Code of Research Ethics seeks to provide ethical principles and guidance regarding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authors, contributors, and members of our Association.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articles submitted to and published in AJLAS, as well as all manuscripts submitted for academic events and conferences organized by the Association.

Article 3 (General Guidelines for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1) All authors,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are expected to follow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2)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pplies to all research activities at all stages, including the publication process and the distribution of funding for members of AJLAS and the Association.

Article 4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AJLAS regards the following activities as violations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1) Plagiarism: Misappropriation of an original author’s ideas, intrinsic content, or research results without the acknowledgment or pre-arranged permission.
- (2) Fabrication and Fraud: Falsification, invention, or manipulation of qualifications, data, sources, results, or cit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used in research.
- (3) Authorship Disputes: Providing false information about a researcher’s affiliation or academic position, granting authorship to individuals who did not contribute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the failure to grant authorship of a manuscript to individuals who contributed to the content or results of the research, or who made relevant contributions, without justifiable reason.

- (4) Duplicate Submission and Self-plagiarism: Submission of manuscripts describing research results or elements that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ose described in another journal or primary publication.
- (5) Other Violations: Any other reports of misconduct judg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of AJLAS as noticeable misconduct.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 (1) The members of the editorial board of AJLAS shall serve on the journal's Research Ethics Committee.
- (2) Individuals with conflicts of interest related to any investigation shall be excluded from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 (3)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consult or involve a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executive or an external expert in its decision making, dependent on the severity or nature of any violation.

Article 6 (Reporting Violations)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may receive reports of misconduct by any available means, such as in writing, by phone, by mail, by email, or through the LASA website. It is acceptable for a proxy to submit a report of ethics violations.
- (2) Reports of misconduct should be made by an informant using his/her real name. Anonymous allegations of misconduct may not be considered. However, if specific information and substantiated evidence related to a claim of misconduct are submitted, anonymous reports will be accepted.

Article 7 (Investigative Process and Vindication)

Research ethics violations may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ways: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convene and initiate an investigation within two weeks of any report of violations being filed.
2.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obligated to gather sufficient evidence of specific misconduct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port.
3.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ny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erson(s) who report violations be published. The committee should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the informant from negative repercussions or possible external pressures.

4. The person(s) concerned will be informed of the allegation in writing or by meeting with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n person.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are given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opinions, objections, and arguments.
5.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will keep confidential the identity/ies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ensure that the person(s) concerned experience no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until the suspected misconduct has been verified.
6. All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including reports, deliberations, decisions, and suggested measures, shall be kept confidential. Individuals who take part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during the execution of the investigation or related tasks.
7.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shall notify the person(s) concerned of both the content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efore the final decision is made. All parties and persons related to the allegation will be given sufficient opportunity to respond.
8. The committee shall notify the informant and the person(s) concerned after a decis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has been made by vote. For a vote to be executed successfully, more than two-thirds of the currently registered members and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in attendance are required.
9. The results of the ethics violation investigation must be reported to the board of the Association, and all records, including relevant documentation, evidence, and lists of individuals involved, shall be provided.

Article 8 (Measures after Verification) If it is determin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that there is an actual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disciplinary measures will be taken based on the severity of violation. These are as the following:

- (1) The authors' institutions and sponsors will be notified of the violation of the Code of Research Ethics.

- (2) The authors will be prohibited from submitting manuscripts to any publication related to the Association and to AJLAS for three to five years.
- (3) Published papers will be removed from AJLAS and from the Association's digital archive and members will be informed of the reasons for this decision.
- (4)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reported to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ccording to that foundation's management guidelines for scholarly journals.

Addendum

1.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took effect on October 1, 2008,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2.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was revised on October 10, 2020.
3. Matters not specified in this Code of Research Ethics may be discussed and decided by the editorial board.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of Manuscript

About the author:

1. Name:
2. Title and institution:
3. E-mail address:
4. Telephone number:

About the manuscript:

1. Title:
2. Five Keywords:
3. Abstract (200 words):

Submission date:

- * I certify that the manuscript represents original and valid work and that neither this manuscript nor one with substantially similar content under my authorship has been published or is being considered for publication elsewhere. If requested, I will provide the data or will cooperate fully in obtaining and providing the data on which the manuscript is based for examination by the editors or their assignees.
- ** For papers with more than 1 author, I agree to allow the corresponding author to serve as the primary correspondent with the editorial office, to review the edited typescript and proof.
- *** Contributor's Qualification: All contributors must have at least a master's degree in order to submit a manuscript.
- **** More information about the formatting and submission of manuscripts is available at: <http://www.ajlas.org>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The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AJLAS) is an academic journal for discussion and debate on the subjects of Latin American affairs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between Asian and Latin American Societies. The AJLAS has been published by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LASAK) since 1988. Published four times a year in February, May, August and November, AJLAS seeks to stimulate and disseminate research and scholarship in a broad sense of Latin American Studies. The scope of the AJLAS covers all area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economics,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philosophy, history, sociology, geography, anthropology and literature. Articles wit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are especially welcome.

1986년 창립된 이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f Korea)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학회지 발간을 비롯한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그에 따른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의 현안과제를 수행하며 학문의 사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실문제의 접근을 꾸준히 시도한다.(예, 2000년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21st century challenge to Latin America and new perspectives”)

둘째, 라틴아메리카연구의 학제적 연구 풍토 조성 및 강화에 힘쓴다. 특히 현 단계 학문 특성에 맞는 학제적 연구 풍토를 진작시키는 한편 지역연구의 핵심과제인 비교연구를 촉진한다.(2004-2006년 학술진흥재단 프로젝트 “문화적 저항과 새로운 연대: 민주화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인권”)

셋째,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한국 라틴아메리카연구의 국제적 활동을 도모하고 학회의 세계적 위상을 진작시킨다.(예, 2007년 ‘범아시아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학회(CELAO)’ 행사 주관)

넷째, 라틴아메리카 지역 연구의 다양화 및 다변화를 추구한다. 연구인력의 분업화와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해 각종 연구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공동연구의 기반을 조성한다.(예, “인문사회분과”, “정치외교분과”, “경제경영분과”의 전공분야별 분과 세미나 운영)

이와 같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는 국내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유일한 전국적 학술단체이자,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문화, 문학, 사회, 정치, 경제 등 모든 인문사회 학문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전문가집단이다.

학 회 안 내	
학회 연회비 납부	우리은행 1002-563-092001 (예금주: 전주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 정 회 원 5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종신회원 5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대학원생 3만원
논문 게재료 납부	하나은행 393-910457-92707 (예금주: 이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재료: - 전임/연구비논문 3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 비전임 10만원
학술지 논문 투고처 및 출판관련문의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0호관 310호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우편번호 44610) 전화: 052-259-276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학회 총무이사	조영현, 정상희, 강정원, 전주람 교수 대표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우편번호 46234) 전화: 051-509-5824 E-mail: lasakorea@gmail.com
학회홈페이지 학술지 아카이브	https://lasakorea.co.kr/ http://www.ajlas.org

『라틴아메리카연구』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이순주(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정치)

■ 편집위원

강경희(제주대 정치외교학과, 정치)

김영석(계명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경제)

노용석(부경대 국제지역학부, 인류)

박구병(아주대 사학과, 역사)

오삼교(위덕대 경찰행정학과, 정치-국제관계)

우석균(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중남미 문화-문학)

이미정(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경제지리)

임태균(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사회)

최해성(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국제관계사)

하상섭(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국제정치경제)

Gian Luca Gardini(School of Business, Economics and Socie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Gioconda Herrera(Departamento de Sociología y Estudios de Género, FLACSO Ecuador)

Guillermo Salas-Carreño(Departamento Académico de Ciencias Sociales- Sección Antropologí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Jie Gu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Jonathan Brown (Department of History,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unyoung Veronica Kim (Department of Hispanic Languages & Literatures, Univ. of Pittsburgh)

Nobuaki Hamaguchi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Kobe)

Su-Jin Lim(Facultad de Ciencias Políticas y Sociales, University of Colima)

■ 편집이사

구경모(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김희순(고려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Bradley Tatar(Division of General Studies,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편집간사

김재영(고려대 서어서문학과)

필자소개(집필순)

김기현	선문대학교
박효진	서울대학교
김종섭	서울대학교
우석균	서울대학교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 제36권 1호
라틴아메리카연구(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3년 4월 30일 발행

발행인 곽재성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전화: 031-201-2385

편집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20호관 310호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우편번호 44610)
 전화: 052-259-2766
 E-mail: lasak@naver.com
 Homepage: <http://www.ajlas.org>

발행처 스마일기획
 08839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12길 18
 전화 02-874-1911
 E-mail: smilework@naver.com

www.eaerweb.org

Call for Papers for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With great pleasure,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welcoming submissions.

AIMS and SCOPE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an economic journal, for the promo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s. Published as a quarterly by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 Korean government-funded economic think-tank, the Journal is global in perspective and covers both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The Journal aims to facilitate greater understanding of all issues pertinent to diverse economies of East Asia through publication of rigorous analyses by renowned experts in the field. The EAER connects policy and theory, providing empirical analyses and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for the economies in the region.

TOPICS COVERED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brings together article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economics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Issues relevant to East Asia's diverse economy are the major focuses. Specific areas of interes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Trade and Investment Issues • Economic Integration • APEC
- ASEAN • ASEM • International Finance • Liber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EAER Abstracting and Indexing Services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is indexed and abstracted in EconLit, e-JEL, JEL on CD, OCLC WorldCat, ProQuest, Google Scholar, ECONIS, EconBiz, EBSCO, British Library, SSRN, RePEc,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Directory of Open Access Scholarly Resource (ROAD), DOAJ and registered to Ulrichsweb, ITS : MARC, CrossRef, ORCID, SHERPA/RoMEO, Korea Citation Index, Think-Asia, Microsoft Academic, Dow Jones Factiva, Dimensions, 1findr, Scilit, Lens, Lexis Advance and OpenAIRE.

NOTE FOR AUTHORS

SUBMISSION GUIDELINE:

Refer to our website www.eaerweb.org and Click "Submission" menu at the top of the main page.

SUBMISSION DEADLINE:

The Journal is published every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of each year and submissions are accepted for review on an ongoing basis.

REVIEW PROCESS:

We have introduced a "fast-track" system, which takes four to five weeks on average from submission to the first round review in order to provide quick and authoritative decisions to the authors. In general, the Journal's manuscript decision process includes submission, editorial decision on whether the paper should be reviewed, peer review, decisions after review, revision, acceptance in principle, final submission and acceptance, proofs, advance online publication, and print public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submission, Contact EAER Editorial Office:
[30147] 3rd Floor, Building C,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Korea
Tel: 82-44-414-1213 FAX: 82-44-414-1044
Email: eaer@kiep.go.kr
Website: www.eaerweb.org

AWARD FOR EAER

The *East Asian Economic Review* Award is given annually to articles that have made exemplary contributions to advance the public as well as academic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economics. Every article published in the Journal is given an honorarium of KRW 2,500,000; and annual nominations for the outstanding and noteworthy articles include KRW 5,000,000 prize and a detailed nomination statement describing how the selected papers have contributed to the knowledge of international economics.